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1980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高 富 子

#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1980年 12月 日

檀國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韓國史專攻

高 富 子

高富子の 碩士學位

論文을 으로 判定 함

審査委員長 印

---

審査委員 印

---

審査委員 印

---

1980年 12月 日

檀國大學校 大學院

# 目 次

I. 序 言	1
II. 濟州島 文化형성의 特色	3
III. 濟州島 服飾의 二重構造	10
IV. 濟州島의 通過儀禮服	13
1. 出生儀禮服	14
2. 婚禮服	22
3. 死後儀禮服	38
V. 結 言	49
사진	51
그림	61
參考文獻	72

## 写 真 目 次

1. 개가죽두루마기 ( 牧者服 )	5 1
2. 쇠가죽두루마기 ( " )	5 1
3. 牧者服	5 1
4. 牧者服	5 1
5. 가죽머선 ( 牧者服 )	5 2
6. 가죽감태, 털모자 ( 牧者服 )	5 2
7. 가죽머선과 감실신 ( 牧者服 )	5 2
8. 물소중이 ( 海女服 : 下衣 )	5 2
9. 물적삼 ( 海女服 : 上衣 )	5 3
10. 三·七日 옷 ( 初生兒服 )	5 3
11. " ( " )	5 3
12. " ( " )	5 3
13. 애기구덕	5 4
14. 婚礼服 ( 男 : 紗帽冠帶, 女 : 장옷 )	5 4
15. 장옷 ( 女 : 婚礼服, 寿衣 : 호상옷 )	5 4
16. " ( " )	5 5
17. " ( " )	5 5
18. " ( " )	5 6
19. " ( " )	5 6

20. 婚礼服 (男: 紗帽冠帶, 女: 圓衫・簇頭里)	57
21. " (女: 圓衫)	57
22. 官服 (男: 婚礼服)	58
23. " ( " )	58
24. 官服函	59
25. 紗帽 (男)	59
26. 遮扇 (男)	59
27. 角帶 (男)	59
28. 복건 (男: 풍령이)	60
29. 木靴 (男: 회)	60
30. 簇頭里와 도투락 땡기 (女)	60
31. 龍비녀 (女)	60
32. 圓衫帶 (女)	60
33. 드림땡기 (女: 앞줄)	60

## 目 次

1.	寿衣 (男:深衣)	61
2.	" (男:袷)	61
3.	" (男:襦衣)	62
4.	" (男:저고리)	62
5.	" (男:속적삼)	63
6.	" (男:바지)	63
7.	" (男:속고의)	63
8.	" (男:복건)	63
9.	" (男女:幪目)	63
10.	" (男女:汚囊)	64
11.	" ( " :搥手)	64
12.	" ( " :裹頭)	64
13.	" ( " :버선)	64
14.	" ( " :습신)	65
15.	" (男:대님, 허리띠)	65
16.	" (男女:天衾)	65
17.	" ( " :지요)	66
18.	" ( " :裹肚)	66
19.	" ( " :베개)	66
20.	" ( " :小歛衾)	66

2 1.	寿衣 (男女:大歛衾)	66
2 2.	" (女:圓衫)	67
2 3.	" (女:삼회장저고리·연두색)	67
2 4.	" (女:삼회장저고리·노란색)	67
2 5.	" (女:속저고리)	68
2 6.	" (女:속적삼)	68
2 7.	" (女:홍치마)	68
2 8.	" (女:청치마)	69
2 9.	" (女:단속곳)	70
3 0.	" (女:바지)	70
3 1.	" (女:속곳)	71
3 2.	" (女:女帽)	71

## I . 序 言

우리나라 服飾研究은 1927年 村山智順의 “朝鮮の服裝”이 처음으로 發表된 후 1947年 李如星의 “朝鮮服飾考”를 비롯하여 1961年 石宙善教授의 “우리나라 옷”과 1972年 “韓國服飾史” 및 여러 學者들의 著書나 論文을 통하여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服飾研究의 경향은 上層에 관한 研究가 主를 이루고 있으며 固有服飾을 襲用하고 生活化하고 있는 庶民服飾 및 特定地方에 관한 研究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筆者는 濟州에서 태어나 그곳의 文化와 風習속에서 本島의 固有服飾을 가까이 접하며 生活하여 왔고 또한 사라져 가는 固有傳統文化를 發掘함과 아울러 地方文化의 정리를 要하는 現時의 要請에 응하여 韓國服飾文化의 一部를 정리하고자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sup>1)</sup>를 비롯하여 概括적으로 本島의 服飾을 소개한바 있으나 좀더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濟州島의 服飾研究에 있어서는 文獻資料나 實物資料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다. 더욱이 世宗朝<sup>2)</sup>와 1948年度 濟州

---

註 1) 高富子.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的 研究」석사학위 청구논문, 梨大 1971.

註 2) 金尚憲. 「南槎錄」 1601

世宗二十七年 牧使崔海山時官府失火流傳文籍盡付回祿事多未考惜哉

島에서 發生한 共匪蠻行 事件인 “四・三事件” 때에 많은 서적이 燒失되어 文獻資料는 더욱 찾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다른 자료에서도 服飾分野는 거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더욱이 庶民服飾이 대중을 이루었던 本島固有樣式의 遺物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本島의 服飾은 本土의 中央行政圈內에서 이루어지는 服飾의 영향 및 주변 國家들과의 交流에 의해 外的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며 기후 풍토등으로 인한 自然 環境적인 요소에 의해 특이한 양상을 보일것으로 보고 研究의 資料를 찾아 보기로 했다. 따라서 本 論文은 1950年代 까지를 濟州島 固有服飾 保有의 下限期로 보고 現存하는 服飾의 實物資料 및 古老들의 口伝과 史的인 資料를 통하여 本島民의 通過儀禮때 着用하는 服飾을 中心으로 研究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他地方의 民俗調査資料를 통하여 本島의 특이성과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했다.

## Ⅱ. 濟州島 文化形成의 特色

本島의 역사는 기원전 65年頃 現在 濟州市 所在 三姓穴인 毛興穴에서湧出한 高 夫 良 三乙那를 耽羅의 始祖로 하는 三姓神話<sup>3)</sup>에서 시작되며, 本島의 명칭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耽羅紀年<sup>4)</sup>에

註 3) 瀛洲誌. (著者未詳. 麗末 朝鮮初?)

瀛洲 太初·無人物也 忽有三神人·從地湧出嶺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良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 登漢拏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處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積五穀之種 出置金箱之岸 三神人 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民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耦 常以遺嘆者歲餘 頃者吾王登紫符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葱籠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莫知所之 三神人即以淑性告天 以年次分娶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自此以後始成產業 植播五穀且牧駒積 日就富庶 遂成人界矣

註 4) 金錫翼. 「耽羅紀年」 1918.

外書

耽羅國名 本九夷之一 亦曰九韓之一 在禹貢揚州之東 渤海之中 幅圓五百余里 今朝鮮全羅道濟州島 即其地也 其在昔時 或稱島夷

史記 禹定九州 各以其職來貢 至于荒服 北撫 山戎 發 息慎 東長 鳥夷 咸戴帝舜之功 按正義 鳥夷或作島夷 指百濟西南海中 諸島 以爲島夷 即耽羅也 尙書 揚州島夷卉服 按括地志云 百濟

國西南 渤海中有大島十五所 皆有邑落人居 屬百濟 此皆揚州之東島夷也 按史記正義 東南之夷草服葛越蕉竹 或稱東瀛州 史記 瀛州在渤海中 按 東國世紀 以金剛爲蓬萊 智異爲方丈 漢拏爲瀛洲而日本人以富士山爲瀛洲 不可信也 或稱州胡國 後漢書 馬韓之西南海島上 有州胡國 其人短小 髡頭衣

韋衣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按 州胡國疑即耽羅也

의하면 上古에는 九韓의 하나로 島夷라 칭하였고, 그 후 東瀛州 州胡国 耽羅 涉羅 牟羅 儋羅 耽浮羅 毛羅 屯羅 등으로 名稱을 달리 하다가 1946年 道制로 실시된 뒤 오늘에 이르렀다.

或稱涉羅 後魏書 正始中 世祖引見高句麗使芮悉弗 悉弗曰 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產 今扶餘爲勿吉(靺鞨)所逐 涉羅爲百濟所并

或稱耽牟羅 隨書 百濟南海行三日 有甸牟羅 南北百余里 東西數百里 土多鹿 附庸百濟 按 甸是耽之訛 隨書又云 煬帝大業四年 遣文林郎裴世清 使倭國度百濟 行至竹島 南望耽羅國 迴在大海中

東史 隨既平陳 戰艦一艘 漂至耽羅國 將還道徑百濟 王資送甚厚 仍遣使表賀

或稱儋羅 新唐書 高宗龍朔初 有儋羅者其王儒李都羅 遣使來朝貢方物 國居新羅武州(今光州)南島上 俗樸陋 衣犬豕皮 夏居草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後附新羅 麟德二年乙丑 酋長來朝 從帝至太山

或稱耽浮羅 韓昌黎集 送鄭尚書序 海外諸國 如流求 浮南 耽浮羅之屬 東南際天地 按 耽是耽之俗字 雲笈書 太上老君 降于浮羅嶽

或稱毛羅 安弘記 例九 宋 嘉祐中 蘇州崑山縣上海 有一船桅折風飄抵岸 船中有三十余人 衣冠如唐人 繫紅鞵角帶短皂布衫 見人皆慟哭 言語不可曉 試令書字 亦不可讀 行則相綴如雁行 久之自出一書示人 乃唐天授中 告授屯羅島首領 陪戎副尉制 又有一書 乃是上高麗表 亦稱屯羅島 皆用漢字 蓋東夷之臣屬高麗者也 船中有諸穀 唯麻子大如蓮的 蘇人種之 初歲亦如蓮的 次年漸少 數年後只如中國麻子 時資善大夫韓正彥 知蓋崑山縣事 召其人犒以酒食 及罷以手捧首 而驟意若懼惑 正彥使人爲其治桅 桅舊植船木上 不可動 工人爲之造轉軸 教其起倒之法 其人又喜復捧首而驟 夢溪筆談 按 天授者 高麗太祖年號 宋人誤以爲則天年號 屯羅似是毛羅之訛也

或稱耽羅 耽羅 林邑之南邊海 小國也 耽羅 高麗與國也 世祖既臣服高麗 以耽羅 爲南宋日本要衝 亦注意焉 (元史)

蓋隨代而相沿也

高靈谷得宗曰 州邈在南海之中 其在昔時 或稱東瀛州 或稱毛羅 或稱耽羅 隨代而改載史册可見矣

瀛洲誌<sup>5)</sup>에 기록된 本島와 韓반도 여러나라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新羅와는 高厚 삼형제가 新羅에 入朝하여 国号를 耽羅로 定하고 陸地部와의 交流가 시작되었고, 그 후 百濟와는 文周王 2년 (AD. 476) 부터 交流하다가 百濟가 亡한뒤 다시 新羅와 關係를 맺기 시작했고, 高麗때는 太祖 21년 (AD. 938) 왕이 星主 王子爵을 주어 属国이 되었다.」 또한 高麗 元宗 12년 (AD. 1271)에는 三別抄가 入島하였으며 忠烈王 元年 (AD. 1275)에는 濟州를 耽羅国이라 復号하여 高麗에서 분리시켜 元에 예속시키고 達魯花赤로 하여금 감시케 하였다. 이로써 本島民은 韓반도와 주변국가와의 与世推移에 따라 二重国籍人의 生活를 계속하게 되었으며 朝鮮朝에 와서는 三代 太宗때 星主와 王子의 号稱을 廢止하고 星主 高鳳禮를 左都知管으로 王子 文忠世는 右都知管으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安定된 中央執權下의 하나의 行政단위가 되었으나 仁祖때에는 光海君 및 王族을 本島로 귀향 보냈으며 당시 牧使 李真卿이 倭寇防衛와 貢物獻納등이 至難해지자

---

註 5) 瀛洲誌. 前掲書

至十五世孫厚清季三昆季 造船渡海 朝于新羅 泊于耽津 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已而耽羅王來朝新羅 王喜曰 豫以不德遽得貴客 不亦悅乎 以厚爲星主 以清令出袴下 愛如己子 名曰王子東宮 季爲徒內 改耽羅爲南化國 各賜衣冠寶盖 親送南道車騎輜重大屬百里 自是之後 敬事新羅 世受其職以修藩臣之禮

至厚十二世孫聃 服事百濟 聃卒後曠世不朝 百濟東城王 庚申以耽羅不修朝貢 發怨興師率四千騎 親征南塞至武珍州 耽羅王昭聞之遣使乞罪乃止其兵 高麗太祖二十一年戊戌 戊耽羅王高自堅 遣太子末老 來朝 仍賜星主王子爵 自後世一朝見而未有筮仕王國者 至維始仕焉

仁祖 7년 부터 本島民의 出陸을 禁止하기 시작하여 이로부터 이 조치는 약 2세기 (仁祖 7년 AD.1629 ~ 純祖 30년 AD. 1830) 간 계속 되었다.

이러한 韓반도 여러 나라들과의 交流關係에서 오는 영향과 三別抄의 本島 입도와 동시에 육지부 文物이 本島로 流入되고 蒙古가 牧馬場을 설치한 이래로 100여년간 統治 간섭을 하는 동안 그곳 住民의 이동과 함께 들어온 文物이 이곳 주민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지금도 그 영향이 언어와 풍속에서 찾을수 있으니 삼별초 抗蒙史 및 石宙明의 資料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三別抄의 抗蒙투쟁사에 의하면<sup>6)</sup>

「麗元聯合軍이 三別抄를 平定한후 元宗 14년 (AD. 1273) 윤 6월 元은 高麗의 留鎮軍과 함께 濟州에 達魯花赤招討司 (후에 軍民總管府로 改稱)를 두고 兵力을 駐屯시켰는데 이로부터 恭愍王 23년 (AD. 1374) 8月 崔瑩장군이 牧胡의 亂을 鎮壓할때 까지 1백 2년이라는 긴 세월을 제주는 元의 직접 統治를 받았거나 또는 高麗에 還屬되었다 할지라도 사나운 牧胡들의 橫暴를 견디며 살아야 했다. 忠烈王 3년 (AD. 1275) 元은 蒙古馬 1백 60匹을 水上坪 (城山面 水山里)에 放牧시킨 것을 비롯하여 牛 馬 駝 驢 羊등을 導入 飼育시키도록 하였으며 斷事官과 萬戶를 두어 牧畜을 主管하도록 하였으므로 牧畜이 크게 융성한

---

註 6) 「삼별초의 항몽투쟁사」. 제주도 1978.

것은 사실이지만 그 反面 軍事用에 필요한 優良馬를 바쳐야 했으며 元이 滅亡한 후에는 獻馬를 拒否하여 牧胡의 亂이 일어나는 岬투리가 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毛施布 1백匹을 비롯하여 馬 動物皮등 7~8種의 土産物을 万物로 每年 元에 바쳐야 했다. 이와같은 貢物은 元의 滅亡할때까지 계속되었다. 元은 또 盜賊등 罪人 1백여명을 流配시켜 제주를 그들의 流刑地로 삼기도 했다.」고 하였으며 또한 三別抄 抗蒙史에 의하면<sup>7)</sup>

「첫째, 고려 武人의 전통적인 不屈의 自主獲國精神이다. 이로부터 耽羅民은 三別抄의 英雄들을 欣慕하여 이지방 地名이나 격전지에는 三別抄의 便에 서서 「“軍港洞→군녕이 ” “破軍峰→바구니오름” “赤岳→붉은오름”」등으로 불리웠으며

.....中 略.....

둘째, 京師의 文物傳來이다. 松都 江都의 士女들이 大的으로 渡來한 까닭에 그들이 直接가지고온 文物과 生活方式은 當時 이지방 만여명의 (고려사 권 7에 10,223名이라고 기록)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어 言語 風俗등 서울풍으로 醇化하였다. 오늘날 제주 方言에 황해도 경기도의 語調와 흡사한 점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연유라고 한다.

셋째, 産業上의 開發이다. 三別抄는 이곳에 최후의 牙城으로 자리잡은 후에는 경제적으로 島民의 自給自足を 위하여 벼농사 養蚕

註 7) 「三別抄抗蒙史」. 향토교육자료 3,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

등을 지도 장려하였으므로 이지방 農蚕法이 크게 개발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三別抄와 蒙古軍의 영향은 현재도 그 殘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으니 石宙明氏도 濟州島方言集<sup>8)</sup>에서 제주도 方言中 蒙古語와 關係있는 것을 조사했는데 語彙 7000 餘個中 240개를 지적하고 있으며, 濟州島隨筆<sup>9)</sup>에서는 蒙古와의 共通點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蒙古와의 共通點

- 1) 帽子 衣服 靴에 毛皮를 使用하는것.
- 2) 皮帽는 蒙古帽의 形이다.
- 3) 搖籃도 蒙古風에 通하는 바가 있다.

蒙古遺風—冬節에 毛皮帽 獸皮衣 及 獸皮버선 등을 使用하여 濟大으로 사냥하는 것이 暖國의 濟州道 같지 않고 其實 蒙古의 遺風인가 한다.

또한 文化形成에 있어서는 歷史的인 사실 외에 기후조건 및 자연 환경에서 오는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며 더욱이 韓半島와는 다른 자연환경에 처해 있는 본도의 특색을 들어본다.

濟州道는 우리나라 最大의 섬으로 총 면적은 1,819 km<sup>2</sup>로 木浦南方 海上 150 km 지점인 韓半島 西南쪽 北緯 33도 10분~33도 35분 東經 126도 10분~127도에 위치하고 1950 m의 漢拏山을

註 8) 石宙明, 「濟州島 方言集」 서울新聞社出版部 1947.

註 9) " , 「濟州島 隨筆」 寶晉齋 1968.

중심으로 하는 地表는 제 4기 玄武岩으로 분출에 의해 旧火山體를 형성했고 따라서 透水性이 강한 玄武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水량이 적어 河川은 乾川이 대부분이며 논과 밭의 비율은 1 : 50이다. 平均氣温은 14.7℃이며 風速 4.8 m/sec로 바람이 심하며 6月下旬부터 7月上旬에 걸쳐 雨期때 강우량은 1,440 mm를 보인다.

이러한 자연환경에서 오는 영향은 오늘날 濟州의 服飾은 우리나라 上代의 基本服飾인 두루마기(袍) 저고리(短衣) 바지·고이(袴) 치마(裳裙)를 기본바탕으로 하면서, 漢拏山을 중심으로한 추운 山間지방에서 牧畜을 主業으로 하는 牧者들이 着用하는 被服(사진 1~7 참조)은 北方系의 寒帶服인 짐승의 털 및 가죽을 재료로한 털모자와 털옷 신발 등이며, 바다에서 漁業을 主業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南方系의 服飾이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니 특히 海女들이 潛水할때 입는 海女服인 물소중이(사진 8 참조)가 그 所産이라고 본다.

따라서 本島는 自然환경의 영향으로써는 北方系의 服飾과 南方系의 服飾이 共存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Ⅲ. 濟州島 服飾의 二重構造

記錄에 보이는 本島의 上代服飾을 살펴보면 濟州 說話속의 三神人들은 皮衣를 입고 肉食하였다<sup>10)</sup> 하며 後漢書에는 위에는 가죽옷을 입고 아래는 입지 않았다<sup>11)</sup> 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古代原始社會 특히 수렵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被服을 만들어 기후에 적응하는 自然發生的인 被服發達 단계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 또한 耽羅誌 風俗편에서는<sup>12)</sup>

「俗癡儉 多茅屋 男女好着草履 無砧礁」

라고 하여 풍속이 검소하여 초가집이 많고 남녀가 짚신을 좋아하여 신고 다듬이돌과 방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自然發生的인 被服發達과정에 다가 外部와의 交流에 의해 他地域에서 流入되어온 服飾 형태는 차츰 習合되게 된다. 本島가 新羅때 부터 朝貢賦庸을 거쳐 高麗 朝鮮 現在에 이르기까지 本土 中央行政의 지배를 받아오는 동안에 陸地部에서 倣倣된

---

註 10) 濼洲誌. 前揭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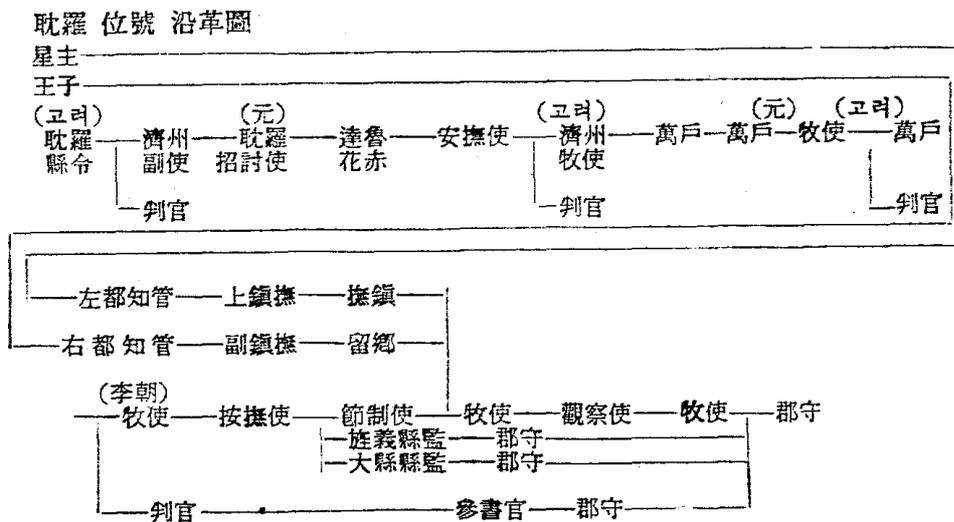
11) 後漢書 卷八十五 東夷列傳 第七十五 「馬韓之西南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髻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 貨市韓中。」

12) 李元鎮. 「耽羅誌」 1653.

官職者<sup>13)</sup> 및 그 家族들에게서 形成되어온 陸地部の 本土樣式과 蒙古民에 의해 流入되어온 蒙古系의 大陸樣式등 他地流入樣式과 本島 土着民들 사이에서 準수되어 왔던 在來樣式과의 사이에서 二重構造를 形成하게 되었다. 이러한 二重構造 현상을 金東旭 教授<sup>14)</sup>는

「国制와 中国制와의 사이에서 계속 内在하여온 韓國服飾의 特色처럼 上層 為政者 階層의 中国文化에의 心醉 乃至 同化와 下層民 階層의 農村社会的 停滯性 그대로 旧習에 젖어 있다는 것은 思想 生活 習俗 其他에 걸친 한 半島的 性格과 巨大한 中国民族의 存在로 말미암은 必然의 姿勢였다고도 볼 수 있다. 服飾에 있어서도 三国時代 이래 이러한 特徵을 明白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二重的 組織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伝承되어 내려온 古代의 패턴이 있을것이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本島

註 13) 金錫翼. 前掲書



14)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亜細亜文化社 1973.

土着 生業民 사이에서 着用되어온 生業服 즉 勞動服과, 官職者 즉 中央에서 파견 되었거나 또는 流配者와 그 家族 및 本島民중에서 官職에 오른 者들이 儀禮 때에 品位를 갖추기 위해서 입는 儀禮服 사이에서 또한 二重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따라서 濟州島 服飾의 양상은 北方系인 大陸樣式에 本島 土着民의 固有樣式과 習合調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生業民들중에서 牧畜을 主業으로 하는 山間地方의 유목민과 어촌에서 바다를 대상으로 生業하는 어부와 中山間부락에서 農業에 종사하는 農民들 사이에는 기후적응과 노동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被服을 着用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海女들의 물옷인 물소중이를 비롯하여 農夫들의 갈옷과 牧者服인 가죽被服의 發達을 들수있으며 오랫동안 本島民들의 生活속에서 답습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庶民層에서도 婚禮 때에는 紗帽冠帶에 圓衫 篋頭里를 着用하게 되므로 儀禮服과 勞動服 사이에서의 二重構造 현상을 이루고 있다.

#### Ⅳ. 濟州島의 通過儀禮服

通過儀禮 (rites of passage)란 社会人類学 用語로 Van Gennep가 命名한 것인데 個人이 一生을 통해 반드시 通過해야 하는 儀禮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出生儀禮 成年式 結婚式 喪禮式이 여기에 포함된다.<sup>15)</sup> 通過儀禮服이란 이런 儀式을 行함에 있어 着用하는 服飾을 말하며 本島에서는 成年式인 冠禮가 생략되고 있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제외했으며 全國을 대상으로한 民俗綜合調查報告書<sup>16)</sup>를 참조하여 本島와의 共通點과 差異點을 밝히고자 한다.

本島의 通過儀禮는 金榮敦 教授를 비롯하여 諸學者 및 筆者가 조사 연구한 資料<sup>17)</sup>가 있으나 계속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註 15) 李杜鉉 張籌根 李光奎, 「韓國民俗學概說」 民衆書館, 1974.

1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1980

17) 金榮敦, 「濟州道民의 通過儀禮」: 無形文化財指定資料 23号, 文化財管理局

“ . 「通過儀禮」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 1973.

“ . 「通過儀禮」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濟州道篇 197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高富子, 「濟州島의 産前俗」 國際大學論誌 14輯. 國際大學 學徒護國團 1976.

“ 「濟州島의 産後俗」 韓國民俗學 9号, 民俗學會 1976

“ 「濟州島의 育兒俗」 國際大學論文集 4. 5輯 國際大學 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7.

“ 「濟州島의 婚俗」 國際大學論文集 6輯. 國際大學 人文社會科學研究所 1978.

## 1) 出生儀禮服

本島에서의 出生儀禮는 아기가 태어나면 胎줄을 정리한뒤 곧 갈 중이에 싸서 방아랫목에 눕혀둠으로써 일단 初生児처리는 끝이 나며 3日째 날에야 비로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며 母乳를 먹인다. 그러므로 出生후 처음 입는 옷은 3日만에야 입게 되기 때문 本文에서는 出生직후의 被服관계와 3日 후에 입히는 옷에 대한 명칭, 만드는 사람, 만드는 시기 및 입히는 시기, 섬유 및 빛깔, 형태 및 치수, 입히는 이유와 특징등을 밝혀 보고자 한다.

### A) 出生 직후 被服

出生후 3日까지는 初生児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男子의 勞動服인 갈옷 중에서도 下衣인 갈중이에 몸을 싸둔다. 갈옷은 本島 農・山・漁村民들이 勞動할때 입는 代表的인 옷으로써 약 3년 정도 입을 수가 있는데 낡으면 헌옷을 기워 입기도 하고 특히 男子가 입던 것은 대부분 初生児를 싸는 포대기로 쓰다가 기저귀로 사용하게 된다. 이 갈옷은 무명으로 옷을 만든 뒤에 柿汁으로 염색한 것인데 柿汁은 防腐劑 역할을 하여 땀이나 물이 베어도 곧 잘 마르므로 쉽게 썩거나 상하지 않으며 쉬 더러워지지도 않으므로 자주 빨 필요가 없으며 더러워져도 빨면 때가 잘 빠진다. 또한 보리가스랭이나 거친 汚物도 잘 붙지 않으며, 通氣性이 좋고 질기므로 本島 農民이나 유목민 및 어부들도 勞動할 때는 필수로

着用하는 옷이다. 애기들의 기저귀로 쓸때 특히 대변을 봤을 때는 보리짚이나 산디짚으로 닦아내고는 汚物이 붙지 않은 곳으로 뒤집어 쓰곤 해도 더러운 자국 표시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갈옷의 빛깔이 피의 빛깔과 비슷하므로 갓 태어난 핏덩이 初生児를 싸두어도 외관상 흉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위생적인 면에서나 경제적 시간적으로 봐서 여러가지 장점이 많으므로 아주 적합한 포대기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갓 태어난 初生児에게 헌옷으로 몸을 싼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것 같으나 洪貞杓<sup>18)</sup> 씨는 “미정피정 밭출인 있어도 미정피정 옷출인 없다”는 옛말처럼 옷감이 귀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면서 옛부터 “식사하고 가세요 라는 인사말은 있으나 추운 날씨에도 옷한벌 주면서 입힌 적은 없었으며 옷이 낡으면 꿰메고 또 꿰메어서 누비옷 이상이였다. 조금이라도 덜 떨어진 곳이 있으면 도려내고 큰 옷은 작게 만드는데 쓰이며 실한오라기라도 그냥 버리는 일은 없었으니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무슨 옷이 있겠느냐”고 한다.

특히 처음 싸는 포대기는 반드시 男子의 바지로 싸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類는 類를 낳는다”는 類似律 (Law of Similarity) 즉 類似呪術行為에 기인한 것이다. 高錫泌<sup>19)</sup> 씨는 “男子는 골격이 크며 힘이 세므로 체력적인면에서도 女子보다 우세하며 또 한가지

註18) 洪貞杓 (男) 1905年生 濟州市 文化財 전문위원 1975년談

註19) 高錫泌 (男) 1887年 濟州市 漢學者 1977년談

는 女子를 천시 여기는 男尊女卑 사상도 內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한다. 혹 女子의 갈증으로 썼던 아이는 자라면서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 잘 쓸어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런 아이들에게는 “제  
어머니 옷으로 썼더냐 잘 넘어지는걸 보니……”라고 하며 여자  
의 옷을 使用하는 것은 철저히 禁諷되고 있다.

#### B) 三・七日옷

##### ① 명칭

꼭 같은 형태의 옷이지만 마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붓뒤창옷,  
붓뒤적삼, 배옷, 3・7일옷, 배창옷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붓뒤창옷으  
로 통칭되고 있다. “붓”은 子宮을 말하며 “붓뒤”라는 말은  
子宮에서 떨어진 뒤라는 뜻이며 창옷은 成人이 입는 홑겹 禮服을  
일컫는 말이다.

本島에서 初生兒에게 입히는 첫옷에 대한 관념은 他道에 비해  
禮服의식이 강한것 같다. 이는 옷에 대한 명칭으로 봐서도 알 수  
있는데 각 道마다의 명칭을 살펴보면 全南地方에서는 일안적삼, 경  
기지방은 삼저고리, 경북지방은 배옷, 서울지방은 배내옷, 강원도지방  
은 삼저고리, 충북지방은 배내저고리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와같  
은 명칭은 本島에서의 창옷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단순한 저고리로  
인식되어 儀禮的인 의미가 약한 것으로 본다.

##### ② 만드는 사람

딸이 결혼하여 첫자식을 낳으면 친정 어머니는 배 석자와 메밀  
가루 미역등을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 배로 대부분 친할머니가

애기옷을 만드는게 원칙이나 가까운 친척도 만든다. 그러나 아기들이 잘 자라지 못하며 早死하거나 병에 잘 걸리는 집에서는 특별히 富貴多福한 老婆에게 부탁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

#### ③ 만드는 시기 및 입히는 시기

첫아기일 때는 태어난 뒤 만들어 3日날 아침에 목욕시킨 후 입히는데 이웃은 세이레간 계속 입힌다. 그러나 옷만드는 시기에 있어서는 他道와 다소 차이가 있으니 本島가 出生 후에 만드는데 반하여 대부분 해산 전후에 만들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지방에서는 임신 9個月이 되거나 産月에 들어가서 또는 해산 뒤에 만들기도 하지만 미리 만들어 두면 魔가 붙는다 하여 후에 따려한다고 하며, 경북지방에서는 미리 만들어 두면 出産이 늦는다고 하여 해산 때가 가까우면 기저귀와 포대기 그리고 배옷이라는 애기옷을 장만하고 있다.

#### ④ 섬유 및 빛깔

베 석자로 베개와 옷을 만드는데 材料는 삼베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本島産 土明紬로 만들기도 한다. 이 옷은 出生 후 처음 입는 禮服이기 때문에 明紬로 만들어 주는 것이 道理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여유있는 집에서는 貴한 자식을 봤을 경우 官服 빛깔처럼 푸른풀(靑色)을 들이기도 한다. 서울지방에서는 천은 白色으로 하며 옹 명주 비단등을 사용하고 近來에 와서는 가제타올 등도 사용한다. 嬰兒의 皮膚가 軟한 까닭에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고 겨울에는 따습고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니

本島가 자극을 주기 위해 거친 삼베로 만드는 점에 대해 嬰兒의 피부를 보호하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드는 他道와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⑤ 형태 및 치수

형태는 韓服 저고리와 같은 것이다.(사진 10, 11, 12 번참조) 동정이나 섯 깃을 달지 않고 대부분 略式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格式을 차린다고 하여 成人이 입는 옷과 같이 섯과 깃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재물천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옷에 따라 등걸이를 길게 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 등걸이는 목중심선에서 반 정도 까지만 꿰메고 터 놓는다.(사진 12 참조) 이는 대소변에 의해 더러워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소매 치수는 男兒에게는 찬소매로 만들고 女兒에게는 반소매로 만들어 입히는데 찬소매란 배의 폭을 통채로 하여 자르지 않고 만드는 것이며 袖口 쪽에서 중간정도까지는 꿰메지 않은채 터둔다. 男兒에게 찬소매로 해주는 이유는 男子는 태어나면서 부터 완전한 인격체로 취급되며 자란뒤에도 바른 길을 걷고 바른말을 하는 男子의 道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女子는 태어나면서 부터 천대시 취급되고 뭔가 부족한 인간이라는 관념에서 구별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첫째 아이가 입었던 옷을 계속 동생들이 물려 입게 되므로 찬소매로 만들었다. 옷고름은 반드시 실로 하는데 실은 長壽를 의미하므로 本島는 물론 他道에서도 共通點을 보이고 있다. 고름은 뒷중심에서 고정시킨 경우, 앞섯에다 단 경우,

겨드랑이에 단 경우등 다양하게 달고 있다.

⑥ 입히는 이유와 특징

이 옷은 반드시 입혀야 한다는 이유가 그 어느 禮服보다 뚜렷하다.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라도 잠깐이나마 빌려다가 입힌다. 生後 첫관문으로 입히는 옷이기 때문에 첫 禮服으로써 또한 강한 체력을 단련시키며 질병을 예방하고 인내심을 길러주는 옷으로 믿고 반드시 갖추어 입히는데 반하여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하지는 않는다. 빌려 주었다가도 곧 돌려 받는다. 本人의 福과 運을 뺏긴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첫번째 禮服이기 때문 반드시 입혀야 한다.

人間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번 큰옷 즉 禮服을 입게 되는데 첫번째 옷은 出生 삼일만에 입는 붓뒤 창옷이며, 두번째 옷은 成人이 되는 婚禮 때 입는 紗帽冠帶와 道袍이며, 세번째는 死後에 저승에서 입게 된다는 호상옷을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옷은 첫 예복으로써 중요시 했으며 아무리 가난해도 빌려서라도 입힌다.

이 옷을 입어 보지 못하면 사람 축에도 못끼며 인간 대우도 못 받는다고 한다. 이는 出生후 삼일날 아침에는 産母와 아기가 목욕을 하고 삼신할머니에게 첫 床을 차려서 人間이 世上에 태어남을 문안올리는 儀式에서 갖추어야하는 禮服인데 첫 관문에서 衣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한다.

둘째로 강인성과 인내심을 기르며 皮膚病을 예방하는 옷이다.

베옷은 조직이 거칠고 성글기 때문에 皮膚에 닿으면 자극을 받

아 아프게 느껴진다. 또한 갓 태어나서 목욕도 시키지 않고 汚物이 붙어 있는 체로 갈증이에 싸서 두기 때문에 차츰 살갗의 皮脂와 함께 엉켜 가렵기 마련이다. 이때 몸을 비비거나 움직일 때마다 섬유와 皮膚와의 마찰로 인하여 자극을 받게 된다. 이 마찰로 인하여 목욕을 시키지 않아도 皮脂가 떨어지므로 皮膚에 붙은 汚物로 인한 피부염을 예방하며 또한 움직일 때마다 자극이 심하여 아프지만 되풀이 되는 동안에 아파도 참는 인내심과 신체를 단련시켜 강인성을 기르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옷을 입히지 않았던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스럼이 생기거나 피부병에 잘 걸린다고 하며 이는 “북뒤창옷을 안입어 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로 절대로 他人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他人에게 양도하면 자기의 福과 命 運이 뺏기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피치 못할 경우에만 빌려 주지만 반드시 회수한다. 筆者가 조사다니던 1978년도 여름에 濟州市 三徒洞에서 研究資料로 양도하기를 원했으나 얻지 못한 적이 있다. 이 옷은 행주로 쓰기도 불똥없고 걸레하기에도 시원치 않은것 같지만 아무에게나 줘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옷이 아니라면서 金을 줘도 바꾸지 않는 옷이라고 하니 近代文明이 發達한 요즈음에 와서도 이 옷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老婆에게서 삶에 집착했던 면모를 살필 수가 있었다. 낡거나 다시 입힐 아이가 없을 경우 또는 옷을 입었던 아이가 죽었을 때는 정결한 장소에 가서 태우거나 죽은아이의 무덤

위에 돌로 눌러 두거나 한다.

넷째로 운수가 좋은 吉服이다.

첫자식 특히 男兒가 입었던 옷은 운수가 좋다고 하여 出征하는 사람이나 과거보러 가는 사람에게 등바대로 누벼주거나 짐속에 넣어 주면 싸움에 이기거나 과거에 급제하며, 또 소송사건이 있을 경우도 勝訴하므로 吉服이라 하여 많이 이용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이 病에 자주 걸리거나 死亡率이 많은 집에서는 富貴多福한 老婆에게 속바지 한벌을 해드렸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옷을 뜯어서 褄창옷을 만들어 입히는데, 長壽를 누리고 富貴多福한 老婆의 福과 命과 運을 이어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 2) 婚 礼 服

婚禮는 本島에서 시행되어 왔던 두번째의 通過儀禮 관문이다. 이는 成人이 되는 의식임과 동시에 相互間에 배필을 맞이하여 새 人生을 出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때 갖추어 입게 되는 衣服은 生後 두번째의 禮服으로써 또한 成人이 됨을 인정받는 의미에서 의의가 큰 것이다. 해방 이후 本島의 婚禮는 外的으로 나타나는 衣服을 中心으로 하여 旧式이나 新式이나 는 말이 생기기 시작 했는데 旧式은 우리나라 固有 婚俗에서 볼 수 있었던 紗帽冠帶 차림의 新郎과 新婦는 圓衫에 篋頭里 차림을 했을 때를 말하며, 西歐文物이 도입되어 男子는 紗帽冠帶 대신에 洋服을 입고 女子는 圓衫 대신에 白色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篋頭里 대신 흰너울을 뒤로 길게 늘어뜨린 차림을 新式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 때에 나타난 新式도 지금의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男子의 洋服 차림에는 변화가 없으나 女子의 드레스 차림은 당시 흰 한복 치마 저고리에 너울을 사용했던 때와는 달리 新式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 후 약 20여년간 유행했던 當時의 新式은 지금에 와서 다시 旧式이 된 것이다. 이 時期를 現시점에서 봤을 때 旧式과 新式的 중간 상태인 과도기 婚禮期라고 볼 수 있다.

本島에서 固有婚俗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服飾은 交通수단과 함께 변하고 있는데 新郎의 服飾에는 변화없으나 新婦의 차림새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女子의 婚禮服 변화는 獨纈를 利用할 때에는 장옷을 입었으나, 가마가 등장하면서 부터는 圓衫을 입고 簇頭里를 쓰기 시작하였다.

#### A) 新郎 服飾 (새서방 옷)

韓國服飾史에서는

官服은 冠服 혹은 常服이라고도 하는데 나라의 大君이나 王子는 常服으로 着用하고 文武百冠은 制服 즉 官服으로 着用하였다. 一般이 婚姻할때 冠服으로 着用하였으나 朝鮮末에는 用語上으로 官服이나 冠服 어느편도 共通으로 使用하였다. 모양은 소매가 넓은 團領으로 된 옷이며 一品~三品 堂上官은 北青色 有紋紗로 四品~九品 堂下官은 北青色 無紋紗로 하고 品位는 紗帽 胸背 帶등으로 區別되었다.<sup>20)</sup> 고 밝히고 있듯이 本島에서도 官服은 일반인이 婚姻한때 婚禮服으로 이용되어 왔다. 現在 남아있는 遺物로 보아 文武의 區別이나 堂上 堂下官의 계급을 무시하고 어느 官服이나 利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1971년도 筆者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北濟州郡 朝天面 金炯達氏가 소장하고 있던 祖父 金郡守의 官服이 동네에서 婚禮服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이옷은 單虎胸背를 단 武官 堂下官의 官服이었다. 한편 現在 濟州市 吾羅洞 文發生氏가 소장하고 있는 官服은 雙鶴胸背가 달린 文官 堂上官의

---

註 20) 石宙善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1971.

官服이다. 이에 대하여 古老들은 어느 계급에서 着用하던 것이든지 상관없이 官服이면 아무것이나 입었다고 한다.

官服을 입은 안에는 제 2의 通過儀禮服임과 동시에 成人의 禮服인 道袍를 입는다. 紗帽冠帶 차림으로 新婦를 率婦하여 온 후 新郎은 官服을 벗고 道袍차림으로 손님을 접대한다.

머리치리에 대하여 宋根南氏<sup>21)</sup>는

“어렸을때 장가가거나 일반 庶民이 장가 갈때는 상투머리를 하지 않고 종각 때 했던 그대로 하나 格式을 차리는 집에서는 상투를 올리고 복건(俗稱:풍뎡이)을 쓰고 그위에 紗帽를 썼다”고 한다.

신발은 木靴(俗稱:회)를 신고 손에는 遮扇(俗稱:선재)을 들어 얼굴을 가린다. 遮扇을 손에 들고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는 얼굴이 곰보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장가드는 첫날부터 곰보를 보이지 않기 위한 때문이라 하며, 또한가지 이야기로는 언쟁이 新郎이 자신의 결점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기 시작한것이 오늘날에 까지 유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절잖게 보이려고 손에 들어 얼굴을 가린다고 한다.

道袍의 빛깔에 대하여 살펴보면

忠淸北道 地方에서는 新郎의 婚禮服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

註 21) 宋根南(男) 1887年生 南濟州郡大靜邑 1977년談

두루마기 그 위에 道袍를 입고 사모를 쓴다. 바지와 저고리는 옥색으로 하고 마고자와 조끼는 오색으로 하기도 하나 보다 짙은 색으로 한다. 道袍는 청색도포이며 그위에 띠를 두루고. 목화를 신었다고 하며, 江原道 地方에서 초례지낼때 新郎의 衣服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청색도포를 입고 사모관대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他地方에서는 有色道袍를 입고 있으나 本島에서 白色道袍를 利用했던 것은 염료기술의 發達이나 경제요건 등이 요인 되고 있다고 본다. 金恩福氏<sup>22)</sup>도 이 점에 대해서 “청색물 들인 道袍가 월등히 좋은 것은 알고 있었고 또 지체 높은 者들이 입은 것을 부러워 하였었다. 또 生後 첫 禮服인 붓뒤창 옷도 청색물을 들인 것을 최고의 호사로 여겼지만 물색 옷감을 구 하기도 어렵거니와 이 곳 사람들의 실정에선 어렵도 없는 일이므로 흰색 도포만이라도 갖출수 있다면 펍 다행한 일이었다”고 한다.

## B) 新婦服飾 (새 각시 옷)

### (1) 장옷시대 (獨轎時代)

獨轎가 언제부터 婚禮시 교통수단으로 利用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1900년 初期에도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때 新婦는 장옷을 입었다. 獨轎는 네귀통이에 나무기둥을 꽂고 포장을 두른것으로서 장식도

註 22) 金恩福(女) 1893年生 南濟州郡南原面 1977년談

없으며 평소에는 해체시켜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는 틀을 만들어 사용한다. 가마보다는 불품이 없었고 당시 가마는 官職者 집안에서만 이용하는 것이었으므로 후에 가마가 일반에게 널리 婚禮時 사용되기 시작 했을 때는 가마를 타고 시집 가는 것이 처녀들에게는 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독교에는 말 2~4 마리를 앞과 뒤쪽에 메워 운반토록 하며 앞에서는 下人이 말고삐를 잡고 말을 인도한다. 독교는 内部 면적이 넓어서 新婦가 타고도 혼수품을 담을 수가 있었다. 濟州市 高氏<sup>23)</sup>에 의하면 “혼수품으로는 쥘래이불에 빗집을 가지고 가는 것이 대부분 기본 품목이었으나 베개 또는 이불까지 추가하면 富者라서 잘 차렸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가난한 집에서는 쥘래이불도 못하고 빗집이나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쥘래이불이란 천으로 누빈 누비이불을 말하는데 이불 거죽은 무명으로 하지만 속에는 솜이 귀하므로 현 조각을 넣어서 누벼 만들기 때문에 부피는 요즘 나오는 담요만도 못할 정도였다. 빗집은 직사각형으로 만든 나무상자로써 속에는 빗과 동백기름을 넣고 가는데 머리를 빗을때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을 모아두는 것이다. 여자가 가장 단정하게 해야 할 곳이 머리이므로 가난한 사람도 빗과 빗집은 꼭 가지고 갔다고 한다.

韓國服飾史<sup>24)</sup>에서 「장옷은 他人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는 美德

註 23) 高氏(女) 1879年生 濟州市 1975년談

註 24) 石宙善, 前掲書

으로 사용되었으며 高麗때의 너울을 비롯하여 李朝때는 장옷이 나타났으며 李朝後期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이는 内外키 위한 옷에 비하여 1940년대 까지도 本島에서는 婚禮服으로 이용되었으며 最高의 礼服이었다. 반드시 두벌을 장만하여 한벌은 입고 한벌은 머리에 써서 얼굴을 가린다.

장옷을 입고 婚禮를 치루었던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17세 때에 (1904년) 결혼한 강모열씨<sup>25)</sup>는 “흰명주 치마저고리에 초록색 명주 저고리를 입고 한삼달린 장옷을 입고 머리는 엷은머리를 했다. 옷을 갖추어 입은 뒤에 장옷을 머리에 써서 얼굴을 가리며 신발은 창신을 신었다.”고 하며 15세 때 (1907년)에 결혼한 李達彬氏<sup>26)</sup>는

“女子는 흰명주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장옷을 입었다. 머리는 엷은머리라고 하는 머리를 했는데 달비를 여러개 모아서 아주 크고 호사스럽게 한다. 머리위에 크게 엷었으므로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못들었고 잘못 없으면 벗겨져 버릴 때도 있었다. 머리단장이 끝나면 장옷을 입은 후에 다시 머리에 장옷을 둘러 썼다.”고 한다.

장옷의 형태는 韓服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옷감은 明紬로 하는데

註 25) 강모열(女) 1888年生 南濟州郡大靜邑 1971년談

註 26) 李達彬(男) 1892年生 南濟州郡中文面 1971년談

머리에 쓰는 것은 有色으로 하고 입는 것은 물을 들이지 않은 白色明紬(사진 15 참조)로 했으나 차츰 有色으로 바꾸기 시작하여 두벌 모두 有色장옷으로 하였다. 有色 장옷 중에서 現存하는 것의 색상을 보면 綠色바탕에 소매 끝동과 앞섶 고름 것에 紅色으로 한것(사진 19 참조)과 소매 끝동 것 고름만 紅色으로 한것(사진 17,18 참조)이 있는가 하면, 소매 끝동 것 고름 및 겨드랑이에 紅色을 단것(사진 16 참조)등 바탕은 綠色으로 하는 点에 있어서는 共通이지만 기타 部分的으로 紅色을 이용하는 点은 다양하다. 石宙善教授는 「班家の 기혼녀는 녹색장옷을 老人은 白色 장옷을 입었다. 여름에는 모시 항라 올라 경광주 등의 紗로 장옷을 지어 사용했고 겨울에는 명주 비단 등 방한용을 겸한 장옷을 썼다<sup>27)</sup>」고 하여 老少에 따라 색깔이 다르며 계절에 따라 옷감도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홍황식씨<sup>28)</sup>는 “육지부에는 明紬보다 더 좋은 비단이 있다고 들어 봤으나 우린 본 적도 없고, 제주에서는 집에서 누에치고 실을 뽑아서 짠 土明紬가 주로 이용 되었으나 土明紬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本島에서는 綠色 장옷을 입어보는 것도 호사로 여기고 있으며, 흰 장옷이라도 집에서 마련하여 주면 다행이었다고 古老들은 말한다.

여건이 여의치 못한 실정에 허례를 피워서 무엇하느냐면서 불품이

註 27) 石宙善 前掲書

註 28) 홍황식(女) 1892年生 北濟州郡 구좌면 1975년談

없는 옷이라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여 禮를 차리기에 족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他地方 사람들은 물색옷을 입고 갖가지 모양을 낸다지만 우리 제주 풍속은 검약한게 美風이라고 한다. 또 어느 老婆는 시집 갈때 친정 부모님이 흰색 土明紬로 장옷을 해 주셨는데 子孫들이 잘 사니깐 환갑 때에 물색 장옷을 해주었다. 내가 시집 갈 때에도 물색 장옷 입는 것이 호사로 여겨서 부러워 했는데 집안 형편에 물색옷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또 흰색 장옷이라도 해 주시는게 얼마나 큰 일이었느냐면서, 장옷이 두 벌 생겼으니 물색것은 머리에 쓰고 흰색 것은 입고 가게 되니 호상 옷까지 다 갖춘셈이라고 한다. 장옷의 안감은 겉보다 질이 좋지 않은 本島産 土明紬를 사용하거나 무명을 쓴다.

장옷 준비는 집안 형편에 따라 두벌하는 경우도 있으나 드물었고 대부분은 입는 백색 장옷 한벌만 준비하고 있다. 이 옷은 회갑 때에도 입고 죽은 뒤는 저승옷이라는 壽衣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장옷은 本島 女性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禮服이었고, 더욱이 生時에 입는다는 옷보다는 저승옷이라는데에 더욱 큰 意義를 포함하고 있다. 婚禮는 일생에 한번 있는 큰 일이긴 하지만 이세상에서 잠깐 동안에 있는 일이며 저승에서는 千萬歲를 영구히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장옷 밑바침 속옷으로는 韓服을 입는데 上衣로는 광복 저고리나 명주 저고리를 입고 下衣는 소중이 바지 굴중이 치마(1~2벌)를 차례대로 입는데 치마도 안에 입는 것은 백색 무명이나 광복

으로 하며 여유 있는 집에서나 두벌 모두 明紬로 할 수 있었다. 明紬치마 대신 俗稱 청목치마(淸木치마)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最高의 호사품이라 한다. 청목치마란 淸나라에서 수입되는 옷감으로 만든 치마인데 청색물을 들인 것으로 淸나라 産 木綿으로 만든 것이다.

內衣로는 下衣로 소중이가 있는데 이는 婦女子들이 속에 입는 옷이다. 이 소중이는 海女들이 바닷물 속에서 작업할 때 입는 것이므로 農山村 사람들은 입기를 꺼려 했다. 本島에서는 農山村을 兩村이라 하여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 보고 바닷가에서 漁業에 종사하는 漁夫들은 개촌 또는 浦村 사람들이라 하여 천대시하여 差等を 두었으며 婚事때 사돈을 정하는 일도 꺼려 했다.

그러므로 바닷가 海女들이 작업할 때에 입는 물소중이를 兩村사람들이 입을 수 있느냐고 하여 꺼려 했다.

버선은 광목버선을 신고, 신발은 감약창신이나 짚신을 신는다 창신은 신랑옷을 빌릴때 같이 따라오는 것인데 검정색천으로 만든 신발로 고무신과 같은 형태이다. 짚신은 보통 널리 신는 짚신이 아니라 俗稱 물깍신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짚이나 천에 곱게 물을 들이고 짚신처럼 만든 것이다. 물깍신도 시집이 잘 살거나 체통을 지키는 집에서나 마련하여 특별히 며느리에게 선물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머리처리는 새각시 치장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었다. 고부랑건지 코머리 방애머리 얽은머리 큰머리등 名稱은 다르나 형

때는 같다. 잔칫날 아침이면 마을에서도 德과 福 그리고 손솜씨를 갖춘 婦女子가 와서 새각시 머리치장을 하는데 반드시 지체가 높은 耆老야만 이 머리를 만지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솜씨가 좋아도 無子孫이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등 婦德에 어긋나거나 팔자가 센 여자는 안된다. 머리는 달비 8~10개 또는 15~25배까지 들여서 만든다. 본인의 머리와 함께 양쪽 갈래로 땡아서 앞 이마 위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에서 모아 새둥지 처럼 동그랗고 오목하게 정리한 후에 끝을 뺏는데 크게 할수록 호사이며 끝에는 빨간땡기를 들인다. 강경출씨<sup>29)</sup>에 의하면,

“머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고개를 들수가 없었고 또 머리가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 꼭꼭 묶어 땡았기 때문에 머리발이 땡겨서 머리를 풀 때까지 하루종일 고생하였으며, 머리를 푼 뒤에도 머리발이 아프고 상처가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일이 많았으며 머리발에 염증이 생겨 부스럼이 되어 몇달씩 고생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또 머리가 크고 무거우므로 벗겨지거나 행동에 불편하므로 赤 또는 白色 형질으로 띠를 만들어 머리를 이마에다 동여 매는데 이 띠를 俗稱 이명거리 라고 한다.

婚禮時의 머리치장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는 朝鮮朝에도 여러차례나 國法으로 婚姻 修養에 따른 綵緞의 禁止와 加髻 禁止令을 내렸으나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으며, 本島에서도 服飾에 대해서는 古

---

註 29) 강경출(女) 1896年生 南濟州郡安德面 1971년談

老들이 앞에서 밝힌 것 처럼 감소했다하나 머리치장에 있어서는 25 배의 달비까지 써서 머리를 크게 올렸다 하니 流入되어온 本土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加髻의 폐단에 대해서는 李德懋는 靑莊館全書<sup>30)</sup>에서

「辨髮은 蒙古의 遺風이다. 지금 婦女들이 너나 없이 風俗을 좇지만 사치하고 크게 해서는 안된다. 富貴한 집에서는 7.8 萬의 돈을 허비하여 넓게 서리고 위태롭게 둘러 塗馬의 勢를 만들고 雄黃版 瑤瓊簪 眞珠縵로 장식하여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이다. 家長된 者는 禁하지 못하고 婦女는 더욱 크지 못할까 두려워 하고 있다. 近日한 富者집 新婦가 있었는데 나이는 13 歲였는데 다래머리를 높고 무겁게 하고 있을 때에 시아버지가 들어오므로 갑자기 일어서다가 다래 무게에 눌려서 목뼈가 부러졌다. 사치가 능히 사람을 죽이니 이런 悲劇이 어디 있는가」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本島의 古老들에게서도 異口同聲으로 말하듯이 폐단에 대한 시비는 共通點을 보이고 있다. 加髻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加髻에 대한 論議 및 禁止는 21代 英祖代 부터 朝廷에서 논의 되었으며 同王

---

註 30) 李德懋 靑莊館全書 服飾

辨髮 蒙古之遺風 凡今婦人 雖隱忍從俗 不可務尚侈大貴富家 費錢至七八萬 法髻側髻 作塗馬勢 飾以雄黃版 法瑤瓊 眞珠縵 其重幾不可支 家長不能禁 婦女愈侈 而愈恐其不大 近有富家婦 年方十三 髻高重 其男入室 婦遽起立 髻壓而頸骨折 侈能殺人 嗚呼! 悲矣

32 年에 髷髻禁止令이 있었다. 즉 「士族婦女의 加髷를 禁하고 俗名 簇頭里로 대신케 한다. 加髷의 制는 高麗時代에 시작하였으니 蒙古이다. 요즘 士大夫家の 奢侈가 날로 盛하여 婦人이 한번 加髷에 百金을 소비해 가면서 서로 본받기를 힘쓰며 되도록 높고 크게 만들려고 하므로 이를 금한다.」<sup>31)</sup> 고 했으나 다시 同王 34 年 髷髻禁止令이 내려지고 「簇頭里로 하되 그의 樣式은 모두 禁했다」<sup>32)</sup> 그러나 다시 39 年 11 月에 「婦人의 머리 모양을 종전대로 髷髻로 하라고 명하여 髮制改革이 중단되었으니 髷髻를 禁하고 簇頭里도 대용케 하였으나 諸臣이 말하기를 簇頭里는 宮中樣式과 구분이 없고 여기에 珠貝로 장식하면 그 값도 髷髻와 같다 하므로 다시 髷髻를 許用하되 다만 加髷만은 禁한다.」<sup>33)</sup> 이에 英祖의 髷髻禁止는 실효를 걸지 못했는데

註 31) 英祖實錄 卷八十七 三十二年丙子正月

禁士族婦女加髷代以俗名簇頭里加髷之制始自高麗蒙古之制也時士大夫家奢侈日盛婦人一加髷輒費累百金輒相夸効務尚高大上禁之

註 32) 英祖實錄 卷九十一 三十四年戊寅正月

命禁髷髻許以宮樣 凡諸他樣并嚴禁

註 33) 英祖實錄 卷一百二 三十九年癸未十一月

上引見大臣備堂 命復髷髻舊制先是 上以婦人髷髻務奢而費多一切禁止之代用簇頭之制簇頭者濶也至是諸臣多言其不便 上又以簇頭與宮樣無別而飾以珠貝則其費與髷同也 命復行髷制而只禁加髷時 上銳意祛奢既禁紋錦之質於燕者又禁珠璣之買手倭者至於堂下官繭紅之袍亦以其費多而禁之然俗習已痼一無其効而法令徒歸於紛更矣

뿌리 깊이 박힌 髷鬘의 인습을 버릴 수 없으며 簇頭里를 代用케 하였으나 宮中에서 使用하는 것이므로 王宮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점과 장식에 드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었다. 正祖때에도 다시 論議가 있다가 12年 10月 備邊司에서는 加髷申禁節目<sup>34)</sup>을 작성하여 加髷禁止法을 제정 발표하였다. 그 후 純祖代에 와서야 쪽진머리가 실시됨을 알수 있는데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sup>35)</sup>에서 「國朝 中葉 正祖 辛亥 이전까지는 大髷가 있었는데 이것을 加髷이라고 하였고 재머리와 합쳐 땃지 않았으며 긴 다래를 땃서 머리를 한번 두를만큼 만들어서 비녀를 꽂았다. 正祖 辛亥 이후 加髷을 禁하고 北髷 俗名 娘子라고 하는 것을 쓰게 하였는데 그것은 머리를 땃아 腦後에 둥글게 서린 후에 비녀를 꽂고 簇頭里를 쓰게 한 것이다. 中略.... 純祖 中葉 후로 全國의 婦女가 다래로 머리 엮는 법을 없애고 자못 자기 頭髮로 腦後에 쪽을 짜은 후 작은 비녀를 꽂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풍속이 되었다. 庚寅年間에 이것을 禁하고 다시 머리를 엮게 한 일이 있으나 행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것이 우리나라 婦女의 머리 모양의 沿革이다」고 하였으니 頭髮로 腦後에 쪽을 짓고 비녀를 꽂은 남자머리는 파마머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本島에서도 婦女子들의 머리모양이었던 것이다.

註 34) 正祖實錄 卷二十六 十二年戊申十月 참조

註 35) 李圭景 五洲衍文長散稿 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証說 참조

(2) 圓衫 簇頭里 時代 (가마時代)

圓衫은 團衫이라고도 하며 明나라 洪武年에서 부터 盛行하였고 朝鮮朝에는 末期까지 王妃 王世子妃는 大禮服으로 着用하였고 民家에서는 圓衫에 簇頭里를 大禮服으로써 婚禮服으로 使用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圓衫은 明나라의 請賜冠服으로 文宗 즉위년 8월에 王의 冕服과 더불어 頒賜되었다.<sup>36)</sup>

圓衫의 色의 構造는 여러차례 바뀌었으나 高宗 33年 禁忌해오던 黃色을 襲用하게 됨에 따라 皇後는 黃圓衫을 입는데 소매는 紅色 藍色 색동과 金織緞의 白汗衫을 붙이고 皇太子妃는 紅圓衫 妃嬪은 紫赤圓衫 公主 翁主는 草綠圓衫인데 綠色 緋에 紅色 黃色 색동에 白色汗衫이 달려 있고 紅色에 藍色 단을 두른 안을 넣었다. 즉 궁중의상은 겹으로 하고 周圍를 選을 둘러서 안과 겹을 따로 처리하여 金箔을 박았으며 民間의 圓衫은 겹으로 뒤집어서 만들었고 草綠 圓衫은 婚禮式 때 使用하게 되었다.<sup>37)</sup> 民間에서는 圓衫과 죽두리를 大禮服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宮中에서 着用하는 圓衫에

註 36) 文宗實錄 卷三 即位年 庚午八月

前略 …… 賜王冕服至可領之 …… 中略 …… 王妃珠翠七翟冠 - 頂金鑲金翟寶鈿花結子等件全級花金墜子一箇各色紵絲羅夾衣服二套計七件一套計四件大紅紵絲大衫一件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 襜褕一件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一副象牙笏一枝一套計三件大紅織金雲肩海棠四季花紵絲圓衫一件 藍暗細花絲襖一件 ……

註 37)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 禮服에 關한 研究」 仁川教育大學 1976.

비해 모양이 작으면서 간단하고 五色의 색동이 붙는다.<sup>38)</sup>

圓衫의 치수에 대하여 閩合叢書<sup>39)</sup>에서는 「圓衫 후당(뒤길  
이) 삼척(三尺), 전당(앞길이) 이척오촌(二尺五寸), 대  
니당(大帶길이) 칠척(七尺), 광(広)이촌(二寸), 1촌부  
리너리 일촌여가 되니라」고 하였다.

本島에서 사용되었던 圓衫도 綠色 바탕에 五色 색동을 달고 있  
으며 치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閩合叢書의 기록과 비슷하다.

本島에서 婚禮 때에 장옷차림과 圓衫차림이 혼용했던 시기는 해  
방전후 10여년간 계속되었으나 장옷차림이 없어지고 족두리와 圓衫  
으로 대체되어 사용한 시기는 1950年代 까지로 볼 수 있다.

구입방법은 장옷은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였으나, 圓衫은 官服과  
함께 마을사람끼리 契를 조직하여 만들어 두었다가 빌려 입었다.  
보통 한 부락에 1~2개정도가 비치 되어 있으므로 高錫泌氏<sup>40)</sup>는  
“일진이 좋은 날은 결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옷을 빌릴 수  
가 없어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오후 늦게야 率婦하러 가곤 했다.”  
고 한다.

머리치장은 本人의 머리에다가 2~3개의 달비를 첨가시켜 굵게  
뿜아서 남자머리를 하며 龍簪을 꽂고 簇頭髻를 쓴 다음 도투락 땡:  
기를 뒤로 늘이고 앞줄(드림唐只)을 앞으로 드리운다. 이때에도

註 38) 石宙善 前掲書

註 39) 憑虛閣李氏 「閩合叢書」 寶晉齋 1975.

註 40) 高錫泌 前掲

초기에는 圓衫 속에 장옷을 입기도 하였으나, 1950年代에 와서는 장옷 대신 白色 明紬로 만든 치마 저고리를 입거나 차츰 무늬있는 色옷을 입기 시작했다. 이때는 창신이나 문짜짚신 대신에 고무신을 신기 시작 하였으며 새 각씨 얼굴에는 눈섭을 그리고 분을 바르기 시작 하였다.

이상과 같이 本島 女性들이 婚禮時 입는 表衣로는 장옷과 圓衫을 들수 있는데 1950年代 부터는 새로운 流入婚俗流行期를 맞게 된다. 이때 부터는 白色치마 저고리에 白色 면사포(俗稱:너울)를 쓰고, 新郎 服飾은 洋服차림으로 바뀐다. 또한 이 때에는 固有婚俗期의 婚禮절차 때에 거쳐야하는 禮狀드리기의 관문(홍세함 전달의식)이 생략됨과 동시에 男子 집에서는 술문을 세우고 式場을 준비하여 婚禮式을 거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교통 수단은 트럭이나 버스가 이용되었으며 차츰 近代化의 물결 속에 舊式의 면모는 살아져 버렸다.

### 3) 死後儀禮服(壽衣: 호상옷)

호상옷은 저승옷이라고도 불리우며 죽은 뒤 저승에서 입을 호사스러운 옷으로 생각하며 입종후 入棺 직전에 屍體를 목욕시킨 후에 입힌다.

고경수씨<sup>41)</sup>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변변치 못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저승에서 입을 옷은 最上의 것을 준비 하고자 한다. 이는 이 世上에서는 마지막이요 저승에서는 영원히 입게 되는 옷이므로 本人은 물론 子孫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장만한다. 과거에는 회갑까지 살면 長壽를 누렸다 하여 큰 잔치를 벌였으며 이때 새 衣服을 짓게 되는데 內衣서 부터 一襲을 장만한다. 이때 입었던 옷은 호상옷이 되므로 평소에는 못해드렸어도 반드시 잘 차려입히는게 자식된 道理”라고 한다. 그러므로 회갑을 맞게 되는 老 부모님을 모신 자손들은 閏年이나 閏달이 들면 온 家族과 친척이 모여 옷을 장만 한다.

筆者가 조사 다니던 최근까지도 老人들의 櫥속에는 가장 소중히 보관 되었던 옷이었으며 濟州市 高氏 할머니<sup>42)</sup>는 “내가 죽으면 입고 갈 저승옷인데 이웃 보다 더 좋은 옷이 이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보관 방법으로는 호상옷 사이사이에 담뱃잎이나

註41) 고경수(男) 1897年生 濟州市 漢學者 1977年談

42) 高氏(女) 前掲

좁약을 써서 두었다가 봄 가을에 날씨 좋은날을 택해서 몇번씩 거뒀시키고 있으며 항상 보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호상옷의 材料로는 明細가 최고품이나, 배로 만들기도 한다. 무명은 屍身이 색을 때 새까맣게 되며, 모시를 쓰면 子孫들의 머리에 새치가 생긴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 나온 化學섬유는 雜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철저히 禁忌하였다. 해방 이후 子孫들이 化學섬유로 장만하여 드리고 있으나 옛날 준비하여 두었던 옷만큼 애착이 안가며 좋지 않다고 한다. 1978년 筆者가 조사다니던 중에 濟州市 吾羅三洞 高氏<sup>43)</sup>를 찾아 갔을때 호상옷이 두벌씩임을 알고 사유를 들은 즉 “아들이 外地에 나가서 잘 사니까 어머님 호상옷이라고 하여 만들어 보냈는데 색깔도 곱고 좋으나, 기계로 짠것이고 雜물질이 섞였을 것이니 내가 짠 明細보다 좋을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四·三事件 때 화재와 도난이 우려되어 땅 속에 묻어 두었더니 풀이 들어서 얼룩이 졌다”면서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면서 아쉬워 했다.

호상옷에 사용되는 색깔은 白, 赤, 綠色이며 호상옷 외에 被覆으로 쓰이는 색으로는 赤色과 黑色 두가지가 있는데 内面에는 赤色을 쓰나 表面에는 黑色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색깔이 있는 천을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白色으로만 쓰는 경우가 많았다.

---

註43) 高氏(女) 前掲

호상옷을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김혜정氏<sup>44)</sup>에 의하면

“婚禮 때에 입었던 옷으로 회갑 잔치때 입고 또 죽어서는 호상옷으로 입었다. 富者들은 시집갈 때 친정 부모님이 해 줬지만 극히 드물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 때에 동네에서 샅을 내고 입었었기 때문에 호상옷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평소에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두었다가 입는 경우가 많았다”. 고 한다.

바느질法은 살았을 때 준비해 두는 옷은 재봉틀을 써서 하나, 죽은 뒤에 만들 때는 반드시 손바느질을 하는데 뒷바느질이나 상침질은 절대 禁屛이며, 흠질로만 하고 매듭은 맺지 않는다. 매듭은 이세상에서 품은 한을 묶고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이세상에서 영킨 일은 이 세상에서 풀고 가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호상옷의 품목에 대하여 1971년 道内 全地域에 걸쳐 조사한 15 가구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格式을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 집은 世冢口에 불과 했으며 官職을 지냈거나 近來에 子孫이 번창하여 잘 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겨우 몇가지 정도 形式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을 뿐이며, 임종에 임박한 어느 老婆는 평소에 입었던 삼베 옷을 깨끗이 빨아 보자기에 싸 둔것을 보이면서 죽으면 입을 저승옷이므로 좋은 옷으로 해 입고 싶지만 이 세상을 험악하

---

註44) 金惠貞(女) 1879年生 濟州市 1971年談

게 살다가는 팔자가 저승에서 인들 별 수가 있겠느냐고 하며 팔자  
한탄을 한다.

(1) 女子 호상옷

女子의 호상옷은 婚禮服의 발전 단계와는 달리 近來까지도  
주로 장옷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圓衫을 입고 결혼했던 後代에  
와서는 圓衫을 호상옷으로 준비하고 있으나 대부분 장옷을 호상옷  
의 품목으로 들고 있다. 이는 장옷을 입고 결혼했던 時代의 老  
人들이 호상 준비를 하여 두었던 때문도 있겠지만 해방 後에  
결혼한 圓衫을 이용했던 4~50代 婦女子들은 圓衫을 빌려 입었  
기 때문에 호상옷이 없으니 환갑이 되면 만들어야 했는데 우리는  
圓衫을 입고 시집 왔으니 호상옷도 원삼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  
원삼은 장옷 보다 새로 나온 신식옷이고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러므로 장옷을 입고 결혼했던 年代와 圓衫을 입고 결혼했  
던 시대에 따라 결혼 때에 입었던 禮服으로 호상옷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本島 女性과 婚禮服은 철저히 來世와 연결된 호상  
옷과 밀착시켜 最上의 禮服으로 여기고 있다. 本島에서 장만하였  
던 女子 호상옷의 품목을 김혜정氏<sup>45)</sup> 로 부터 들어보면 “원삼,  
과두, 바지, 지금(明紬 6자), 천금(明紬 13자) 맹진, 버선, 악  
수, 명모, 소낭, 설명주, 땡기, 현운, 저승돈 등을 준비하며 속옷으로는  
속중이, 속치마(단속곳), 걸치마, 저고리 2벌씩을 준비한다고 하며,

---

註45) 金惠貞 上掲

當時는 圓衫이 장옷보다 유행했을 때이므로 圓衫을 많이 만들었으나 그전에는 장옷을 최고로 여기고 있으며 老人들은 그래도 장옷을 원한다”고 한다.

호상옷의 색깔은 물색옷으로 갖추는 것이 소원이었으며 富者나 勢道家의 상징이기도 했다. 고대선氏는 “없는 사람들은 婚禮 때 흰옷을 입었으나 죽어서 입는 저승옷은 물색으로 입는게 격식이며 소망이다”고 한다. 表衣인 장옷은 婚禮服과 같고 치마 저고리는 綠衣 紅裳으로 하며 上衣는 속적삼 속저고리 위에 겹저고리를 입고 下衣로는 속중이 바지 곁중이(단속곳)위에 치마를 입는다.

여유있는 집에서는 紅色 겹치마에 綠色 홀치마를 입는다.

머리는 곱게 땡아 올리는데 두 가닥을 마주친 자리에서 견지머리를 하며 빨간 갑사 땡기를 들인다. 婚禮 때 처럼 큰 머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몇개의 달비를 덧붙여 쓴다.

이외에 被覆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겹으로 하되 白色 明紬로 單色만을 사용하기도 하며 內赤 表黑을 쓴다.

과두(裹肚) : 배를 싸매는 것으로 明紬나 베를 겹으로 하며 옷을 입힌뒤 싸는 것이다.

오낭(汚囊, 五囊) : 俗稱 소낭 또는 대낭으로 불리 운다. 손발톱과 머리털을 담은 주머니이며 白色 明紬나 表는 黑色으로 內는 赤으로 하는데 대부분 약식으로 漢紙로 만들었다.

악수(握手) : 손싸게이며 白色 또는 赤色과 黑色으로 겹으로 한다.

버선 : 白色으로 접버선을 만든다.

습신 : 俗稱 저승신이라 하며 漢紙로 하되 홀겹으로 한다.

베개 : 白色 明紬나 漢紙로 하며 속에는 솜이나 모래 또는 재를 넣기도 한다.

엄두 (女帽 : 俗稱 엄뒤저고리) : 머리에 쓰는 帽의 일종으로 男子의 복전에 대응하는 것이다. 겹으로 하되 속에는 솜을 넣고 白色이나 또는 안에는 赤色으로 겉에는 黑色을 써서 만들고 머리에서 부터 어깨까지 덮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엄뒤 저고리라고 부른다.

명목 (幪目 : 俗稱 검은호상) : 호상옷을 입힌 뒤 엄두를 씌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큼은 겉을 검정색으로 써야 하므로 검은 호상이라는 俗稱이 붙은 것이다. 안은 赤色 겉은 黑色으로 하는데 안의 赤色은 現世 (이승)에 사는 子孫들이 눈을 밝게 하라는 뜻이며, 겉의 검은색은 現世와 來世 (저승)를 구별하여 다시는 이승을 못본다는 의미에서 두가지 색을 배합하여 쓴다.

천금 (天衾) : 入棺 직전 屍身 위에 덮는다. 赤과 黒을 겹으로 하기도 하며 白色 明紬를 겹으로 쓰기도 한다.

지금 (地衾) : 棺 밑에 屍身을 넣기 전에 까는 것이며 天衾과 같이 만든다.

대렴금 (大殮衾)과 소렴금 (小殮衾) : 明紬나 베를 겹으로 하여 만드는데 거의 생략되고 있으며 天衾과 地衾으로 대치하고 있다.

대신에 두툼포라 하여 배 12자 길이로 길게 잘라 호상옷을 모두 갖춰 입힌 뒤에 屍身을 싸데고는 베로 다시 7 묶음으로 묶는다.

## (2) 男子 호상옷

表衣로는 道袍를 입는데 道袍는 큰옷이라 부르며 홑겹으로 만든 것으로써 婚禮때나 회갑때 입었던 것을 입게 된다. 靑色물을 들인 것이 최고의 호사품이지만 보통 白色 도포를 입는다. 가끔 도포 대신 두루마기를 호상옷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古老들은 두루마기는 절대로 호상옷에는 사용 안한다. 두루마킨 옷이므로 子孫이 번창 못하며, 도포를 간소하게 만든 옷이므로 정식 禮服이 될 수 없는데 어찌 저승옷으로 입고 가겠느냐고 하면서 禮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

上衣는 속적삼 저고리 창옷을 입으며, 下衣는 속중이 위에 바지를 입고 허리띠와 대님을 매며 행전을 찬다.

머리는 항상 衣冠을 정중히 함이 禮의 근본이라 하여 상투를 단정히 틀고 복건을 쓴다. 이외에 被覆은 女子가 사용하는 엄두를 빼고는 女子와 같다.

다음은 全國의 壽衣 현황을 파악하고 本島와의 共通點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民俗綜合調查報告書를 참고로 하여 밝히 고자 한다.

忠淸北道에서는 가진 壽衣를 할 경우에는 男子에게는 바지 저고리 속바지 속적삼 마고자 두루마기 심의(옷옷)를 한다. 女子에

계는 속속곳 바지 단속옷 속적삼 속저고리 속치마 걸치마 저고리 원삼을 한다. 이 외에 男女 共同으로 악수 면복 조발랑 배개 버선 신 홀이불을 한다.

尹氏 데에 보관되어 있는 女子용 수의의 품목을 보면 單袴 袴 廣袴 靑裳 紅裳 單衫 綠衫 紅衫 唐衣 元衫 大帶 褰肚 面帽 搯手 褰頭 五囊 褰鞋 唐已 大欲衾 小欲衾 天衾 地衾 欲布 功布이고, 壽衣에 쓰이는 옷감으로는 삼베 고운부포 명주 비단을 하며 그 중에서 속옷은 삼베로 하고 겉옷은 명주로 하기도 한다. 즉 살에 직접 닿는 것은 명주나 비단으로 하면 살에 붙어서 좋지 않다고 꺼린다. 색채는 흰색 일색으로 하고 수의를 매우 사치스럽게 할 때는 비단으로 마치 혼례복과 같은 일습으로 하고 색채도 같은 색채를 한다.

江原道 지방에서는

토성면 어촌마을의 김氏(40세)에 의하면 보통 수의는 무명으로 한다고 하며 수의의 내용은 남자의 수의는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도포까지 하며 女子의 수의는 바지 속곳 치마 저고리 원삼까지 한다.

명주군 학산리 반가에서는 남자의 수의는 겉옷으로 심의나 도포를 하고 여자는 원삼이나 두루마기까지 하는데 옷감은 주단(비단)으로 하며 산사람의 예복과 꼭 같은 것으로 한다. 또 수의의 일습으로 남자의 것은 심의 창의 바지 저고리 속적삼 속고의 복건 면모 과두 오낭 악수 버선 습신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요

와 배개 과두 허리며 댕뎀이며, 여자의 것은 원삼 저고리 치마  
속저고리 속적삼 단속곳 바지 여모 면모 과두 오냥 악수 버선  
습신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요와 배개 과두이다.

慶尙北道 지방에서는

屍體에 바지와 동정 없는 저고리를 입히고 걸은 삼베로 하고  
안은 명주로 맨 두루막 卽 절수옷(袷衣)을 입힌다. 玉洞에서는  
두루마기와 도포를 입힌다.

忠淸南道 지방에서는 男子의 수의로는 속옷 上下衣 속중이 바지  
속적삼 저고리 두루마기를 女子는 원삼을 해다가 입힌다.

京畿道 지방에서는

수의로는 베를 쓰거나 광목을 쓴다.

명주는 시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으며, 男子의 수의로는  
속바지 속적삼 바지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심의를 하고 女子는  
속속곳 바지 단속곳 속저고리 속치마 걸치마 저고리 원삼을 하고  
男女 共通으로 조발낭 악수 면모 버선 신등을 한다. 또 비단으  
로 道袍까지 입히는 가진염을 하는 경우가 있고 흘염으로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만 입히는 경우도 있다.

全羅南道에서는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에서는 먼곳으로 갈 때 입는 옷이라 하여  
수의를 머눔옷이라 부르며 부유한 집에서는 명주로 하나 보통 삼  
베로 지으며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  
로 골라 입힌다. 또 콩달(윤달)이 든 해에 날을 골라 마당이

나 마투에서 지으며 관을 미리 짜서 그 속에 수의를 넣고 준비해 두었다가 뺨을 당하면 쓴다. 예비를 못해 두었다가 當故를 만나면 冬節인 경우에만 부득이 방에서 수의를 짓는다.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 대동부락에서는 수의를 죽을 때 입는 옷이라 하여 죽으메 옷이라 하며 男子는 바지 돗방(저고리) 두루마기 도복을 입히고 女子는 치마 저고리 버선을 갖춘다.

또 덕촌리 申大中氏 宅에서는 婚禮때 입던 것을 간수 했다가 죽으메 옷이라 하여 男子는 복건 두루마기 도포 바지 돗방 낫덕개를 女子는 치마 저고리 원삼 죽두리 바지 증오 속치마를 준비한다.

全羅北道 지방에서는

수의는 살아있을때 입는 식으로 모든 종류의 옷을 한다. 원삼까지 한다.

이상과 같이, 全國各道の 壽衣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했으나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로 비교 한다면 명칭에 있어서 本島에서는 호상옷, 저승옷으로 부르고 있고 全羅南道 지방에서는 머늬옷 죽으메옷 慶尙北道에서는 절수옷(紵衣)라고 하여 지방에 따라 특이한 명칭으로 부르는 점을 알수 있으며, 섬유는 全國에서 共通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삼베, 명주, 광목, 비단, 무명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명주가 京畿道 지방에서는 시체가 썩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나 本島에서는 무명을 쓰지 않는 반면 全南지방이나 本島에서는 최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종류와 형태에 있어서는 全北지방에서는 살아 있을 때 입

는 식으로 입히며, 全南지방에서는 婚禮 때 입었던 것을 입힌다 하여 本島와 비슷하나 京畿道와 江原道 지방에서 男子의 壽衣에 심의를 첨가 시킨다든가 女子의 壽衣에 曆衣가 첨가 되는 것은 특이한 경우이며 本島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장옷은 他道에서는 전혀 볼수 없으므로 本島 독자적인 壽衣라고 볼 수 있다.

## V . 結

## 言

本島民의 通過儀禮服은 平常服보다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出生後 3日날 입히는 첫 儀禮服인 붓뒤창옷은 世上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게 되는 옷이므로 첫 儀禮服飾으로써 더욱 소중히 다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通過儀禮의 첫관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기대와 禁忌를 안고 있어 그 어느 옷보다도 현실적이면서도 呪術的인 兩面을 갖고 있는 옷이라 볼수 있다. 자극이 심한 베나 土明紬를 材料로 하여 만드는 점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시련에 대한 忍耐力과 強忍性을 기른다는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있다.

두번째의 儀禮服인 婚禮服에서는 가장 호사스럽게 차리고 싶은게 옥망이나 신분과 도리에 맞게 처세하고 있다. 陸地部 家婦女子들의 外出服인 장옷은 오랫동안 婚禮服과 壽衣로 使用되어 왔고, 陸地部에서 民間의 婚禮服으로 使用되어 왔던 綠色圓衫은 특수계층에서만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1940년대 부터 약 10여년간 잠시 유행했을 뿐이다.

男子의 婚禮服은 官服은 사용했으나 婚禮를 치르고 成人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 道袍에 대해 비중을 더 두고 있으며 이옷은 큰옷 즉 大禮服으로써 成人의 禮服이 되고 있다.

세번째의 儀禮服인 壽衣(호상옷)는 本島民의 來世觀이 뚜렷히 반영된 옷이라 볼 수 있다. 박한 風土에서 구차하게 살아온 그

들 나름대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저승에서는 現世에서 피지 못한 꿈과 恨을 풀어 보겠다는 욕망이 강하게 作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世에서는 구차하게 살았으나 저승에서 영원히 입을 옷은 아름다운 색깔과 가장 큰 禮服으로 호사하고 싶어 하며 자신이나 子孫들에게도 가장 큰 의무이며 과제인 것이다. 男子의 道袍와 女子의 장옷 및 圓衫은 婚禮服임과 동시에 호상옷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옷감은 明紬를 최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男子가 婚禮 때에 입었던 紗帽冠帶는 저승에서는 禮服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生時에 官職에 있을 때 입는 옷 즉 紗帽冠帶는 權力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에 저승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는 옷이라 한다. “살아 한번 호사 죽어 한번 호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살아서는 결혼할 때 他人으로 부터 축복과 대우를 받는 일이며, 죽어서 또 한번 他人으로 부터 冥福을 빌어 주는 대우를 받는다는 뜻으로 婚禮와 死後儀禮를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이러한 삼단계의 通過儀禮 과정에서 수반되고 있는 儀禮服은 어느 정도 本島의 固有服飾에 다가 他地方에서 流入되어 온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二重構造 현상을 보이고 있다. 當時 선망의 대상이 되어 왔던 權力層의 의식구조를 동경하면서도 本島의 실정에 맞게 적응하고 있는 일면은 婚禮服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나 첫 儀禮服에서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相互交流되어 習合 調和를 이루면서 長期間에 걸쳐 本島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어 土着化하여 버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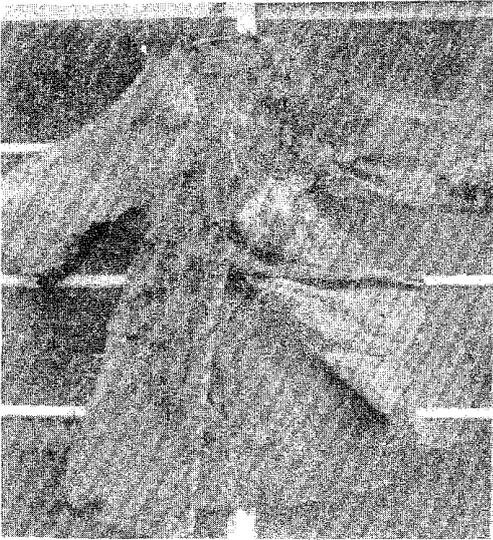


사진 1. 개가죽두루마기 (牧者服)  
(濟州文化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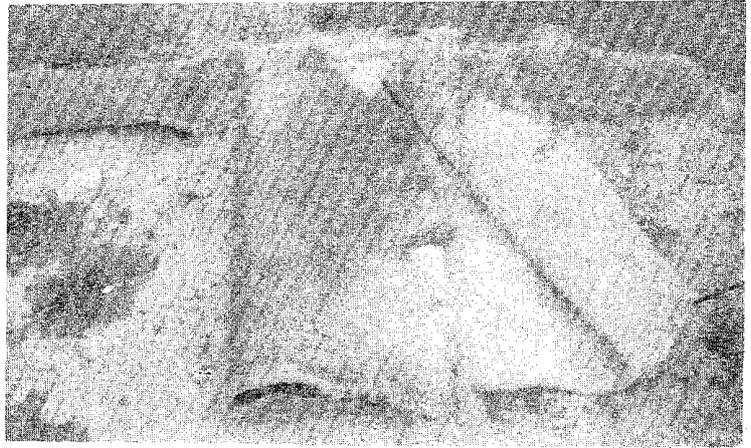


사진 2. 쇠가죽두루마기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사진 3.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제공)



사진 4.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제공)



사진 5. 가죽버선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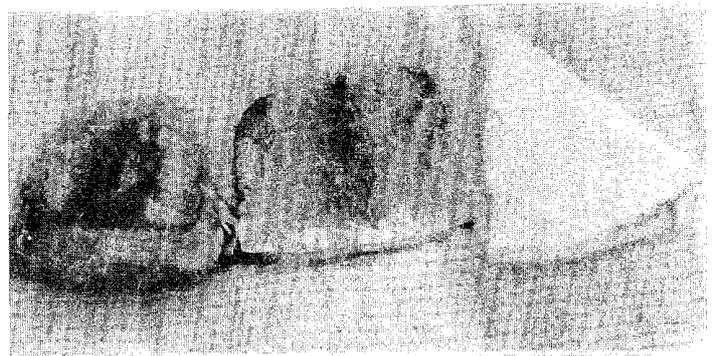


사진 6. 가죽감태 · 털모자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사진 7. 가죽버선과 감실신 (牧者服)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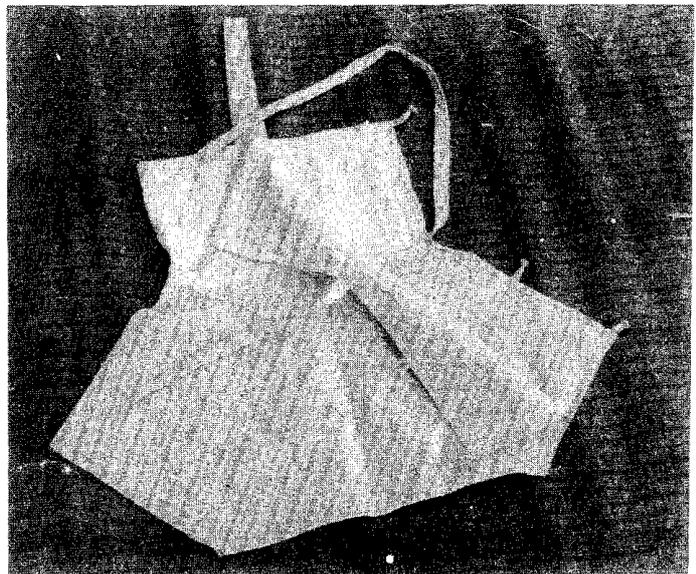


사진 8. 물소중이 (海女服: 下衣)  
(濟州市吾羅洞文癸生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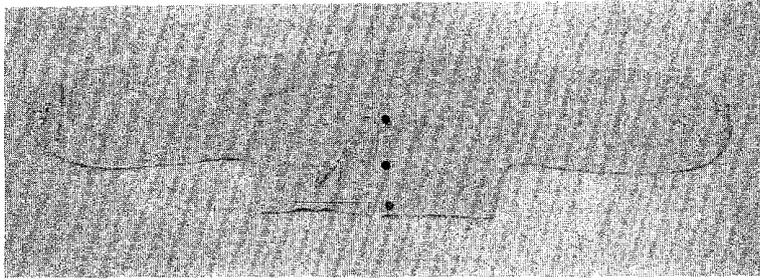


사진 9. 물적삼 (海女服：上衣)  
 (濟州市吾羅洞文癸生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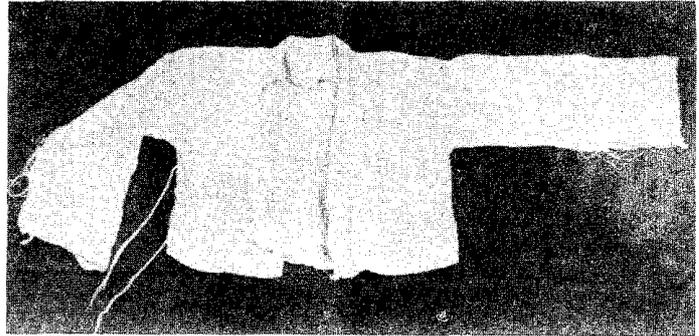


사진 10. 三·七日옷 (初生兒服)  
 (濟州市吾羅洞文癸生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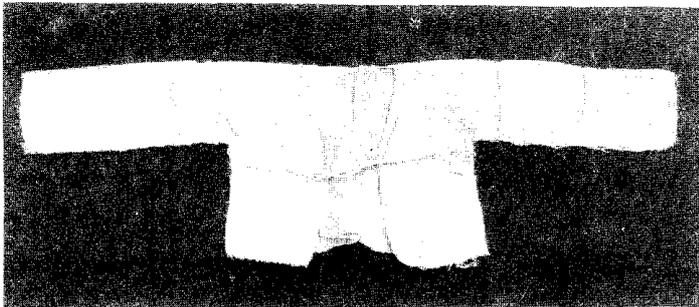


사진 11. 三·七日옷 (初生兒服)  
 (濟州市吾羅洞文癸生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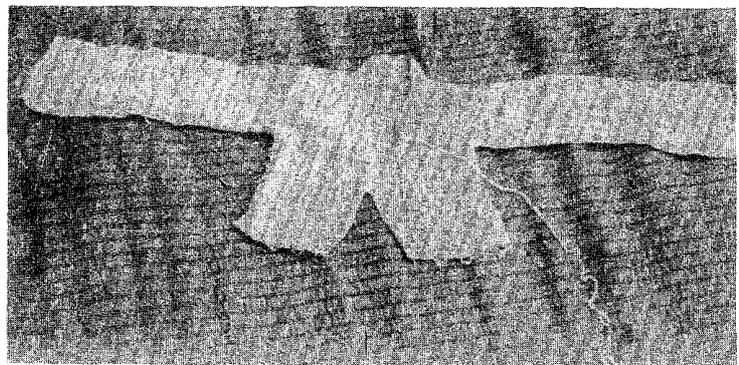


사진 12. 三·七日옷 (初生兒服)  
 (濟州民俗博物館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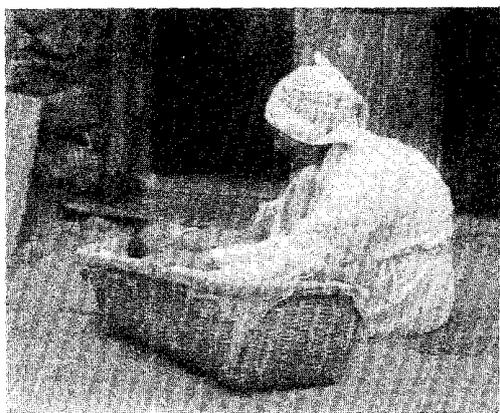


사진 13. 애기구덕  
(濟州市 1971年)



사진 14. 婚礼服 (男: 紗帽冠帶)  
女: 장옷  
1945년 남제주군서귀포흥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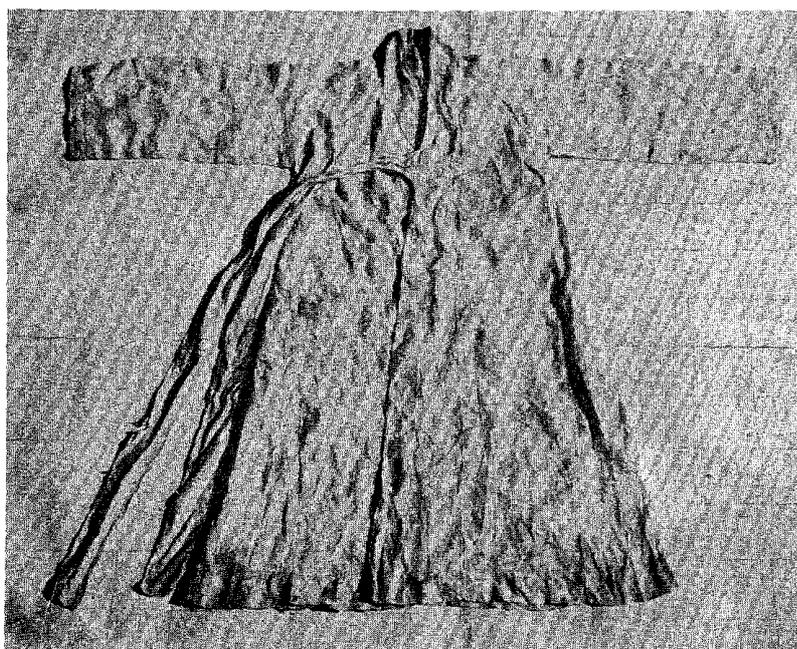


사진 15. 장옷  
(女·婚礼服. 호상옷: 壽衣)  
1896년 제주리오라티高氏가  
혼례때 입고온 白色明紬  
장옷

사진 32. 원삼帶(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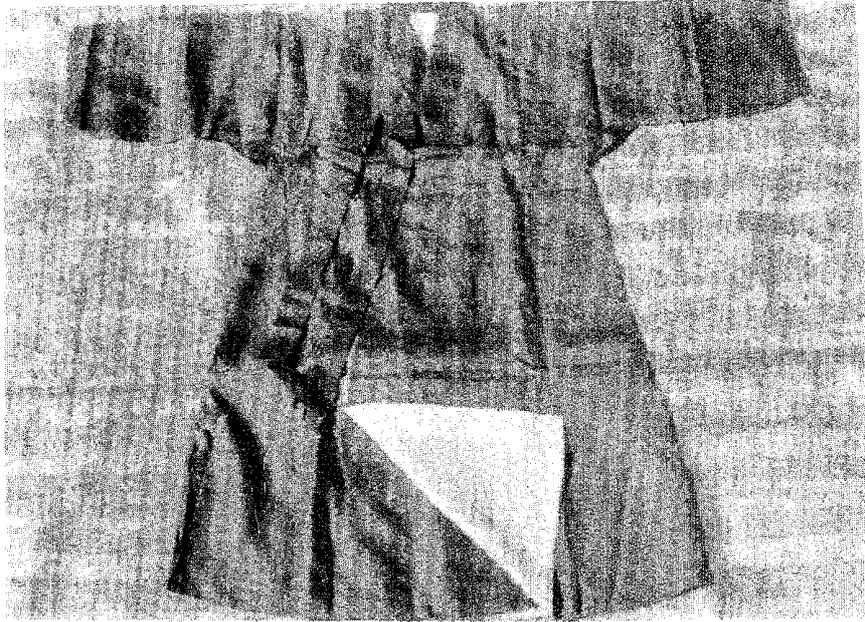


사진 16. 장옷 (女·婚禮服. 호삼옷 : 壽衣)

제주시오라리고씨 장옷 (18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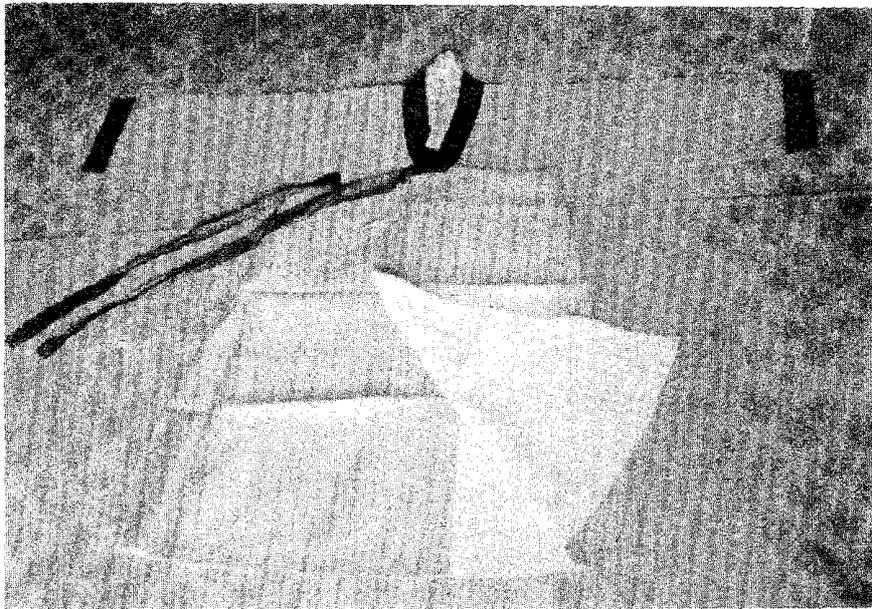


사진 17. 장옷 (女·婚禮服. 호삼옷 : 壽衣)

제주시오라리전씨 장옷 (19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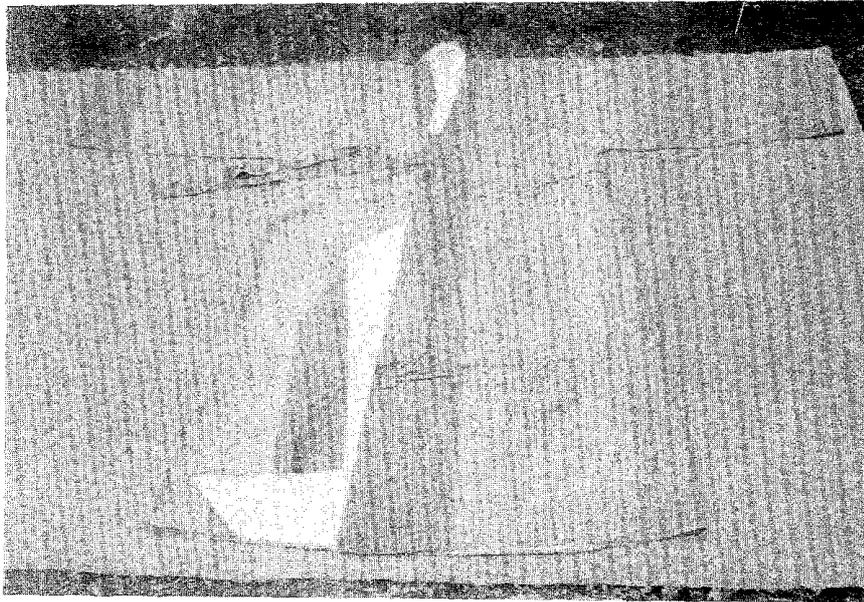


사진 18. 장옷 (女·婚礼服. 호상옷 : 寿衣)

제주시오라리문씨장옷 (19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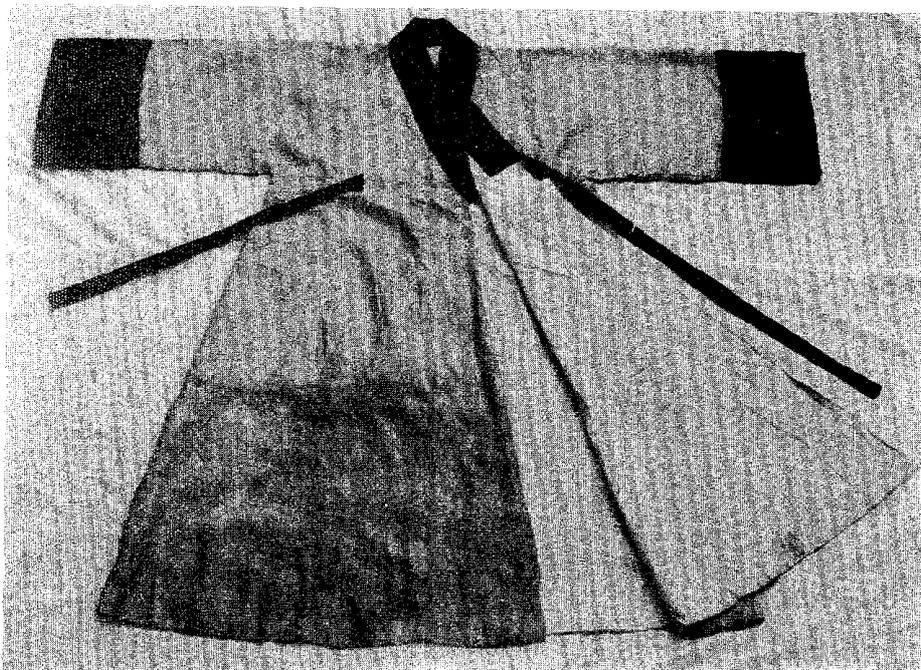


사진 19. 장옷 (女·婚礼服. 호상옷 : 寿衣)

제주시文癸生소장 (1907년)



사진 20. 婚礼服, 1950年 濟州市.  
(男: 紗帽冠帶  
女: 圓衫, 簇頭里)



사진 21. 圓衫(女: 婚礼服)



사진 22. 官服 (男: 婚礼服)

北濟州郡朝天面 金炯達氏 소장

祖父 金郡守가 입었던 옷.



사진 23. 官服 (男: 婚礼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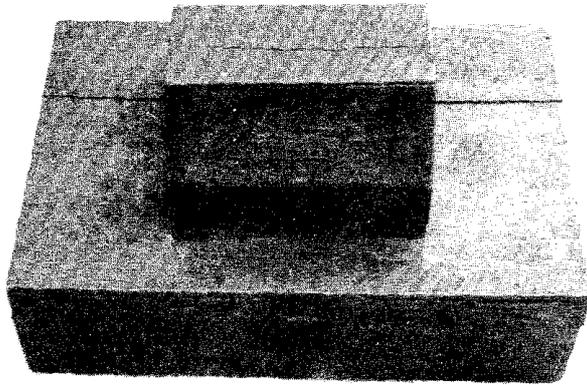


사진 24. 官服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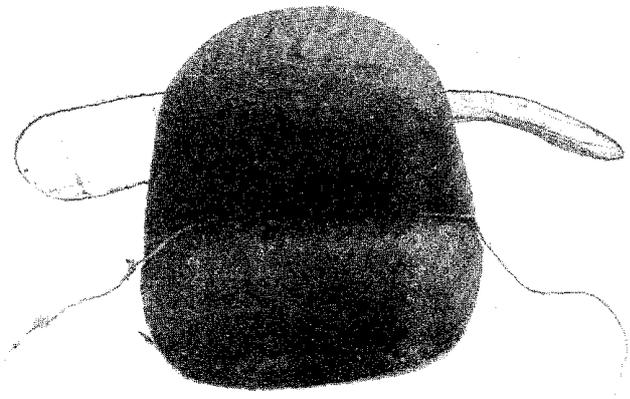


사진 25. 紗帽(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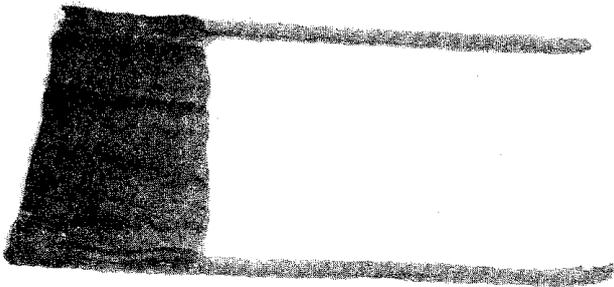


사진 26, 遮扉(男 : 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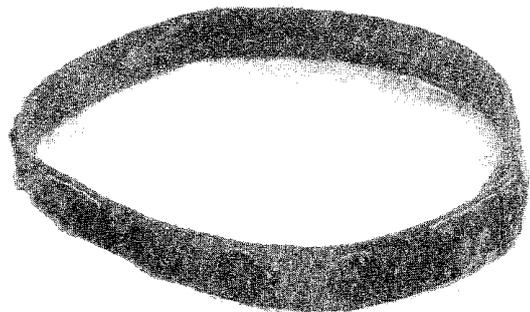


사진 27. 角帶(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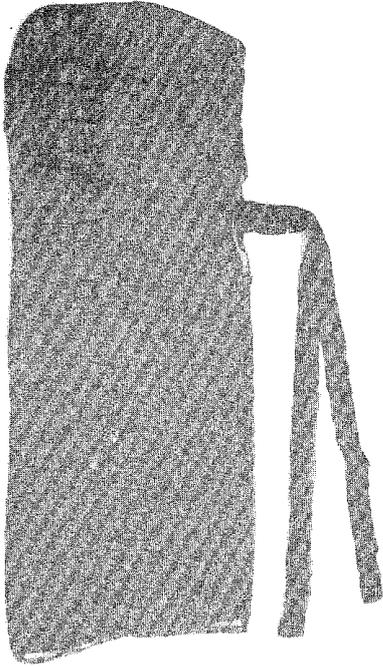


사진 28. 복건(男:풍뎡이)



사진 29. 木靴(男: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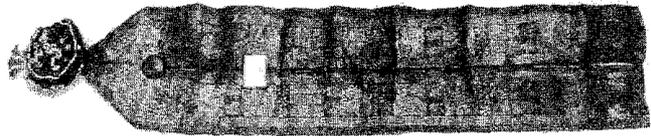


사진 30. 족두리와 도투락뎡기(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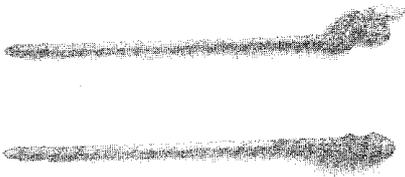


사진 31. 용비녀(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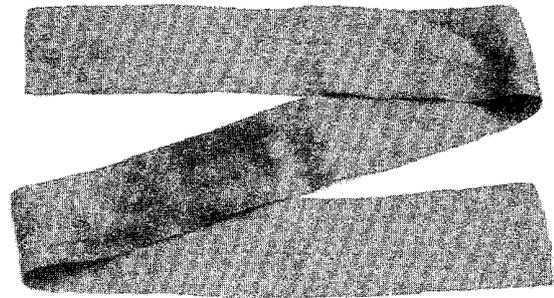


사진 32. 원삼뎡(女)



사진 33. 드림뎡기(女:앞줄)

사진 21.23 ~ 33 까지 一襲임

濟州市吾羅洞:文癸生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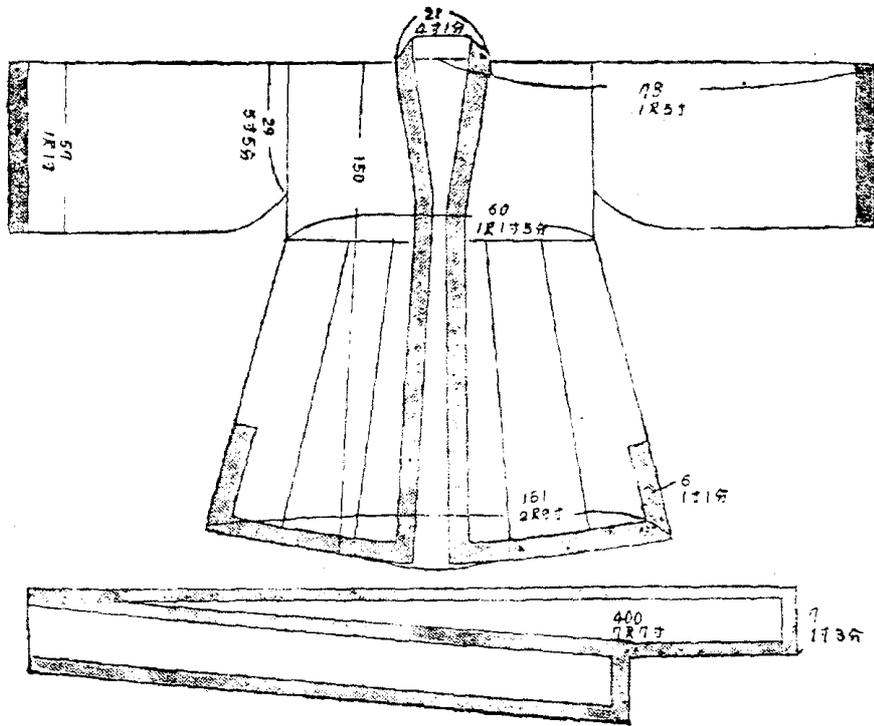


圖 1. 寿衣 (男: 深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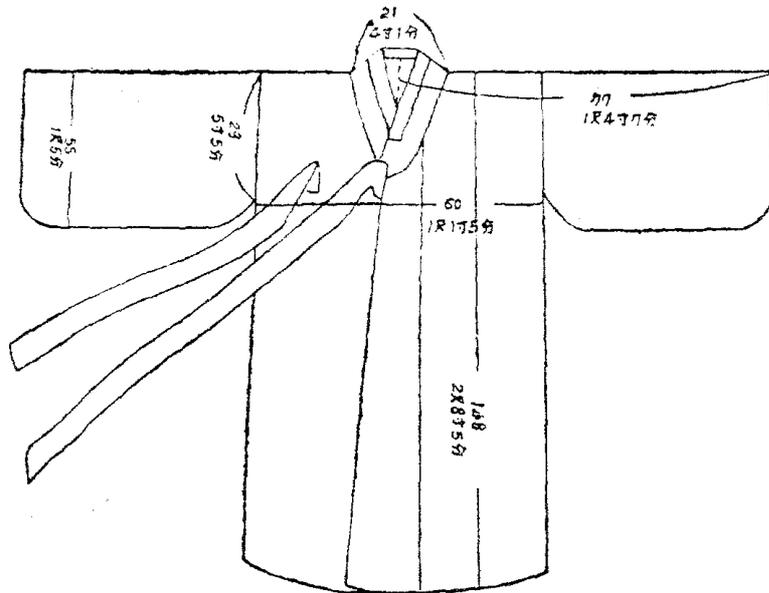


圖 2. 寿衣 (男: 袷)

(石宙善: 우리나라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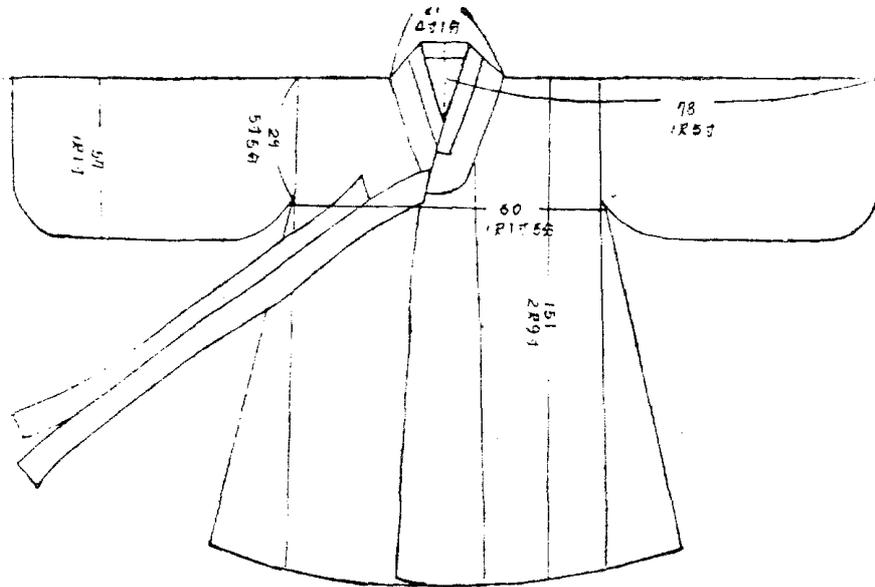


圖 3. 寿衣 (男: 髦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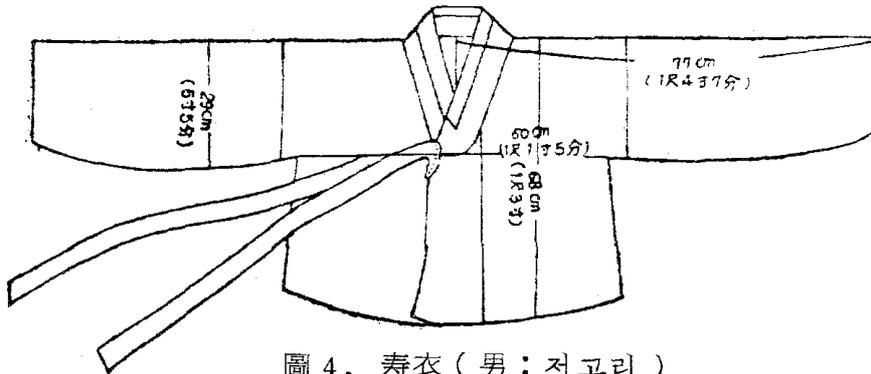


圖 4. 寿衣 (男: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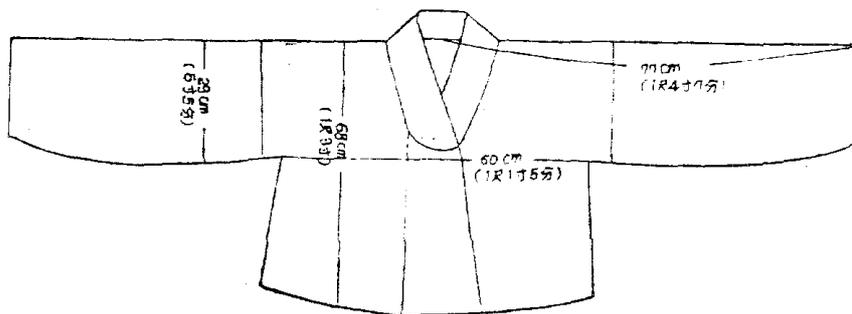


圖 5. 寿衣 (男: 속적삼)

(石宙善 : 우리나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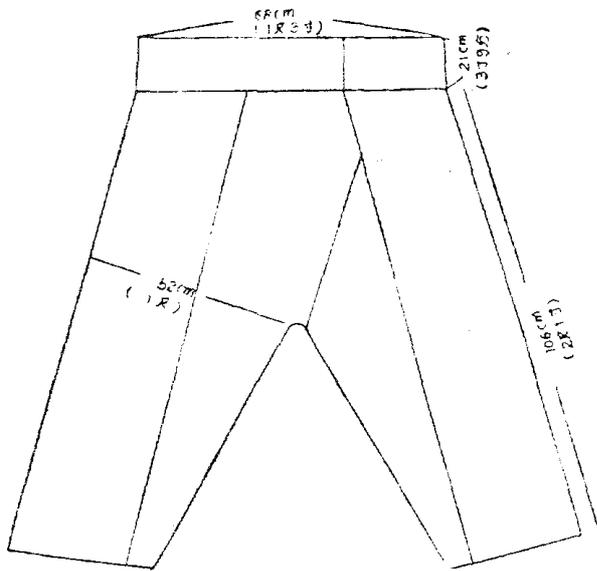


圖 6. 寿衣 (男 :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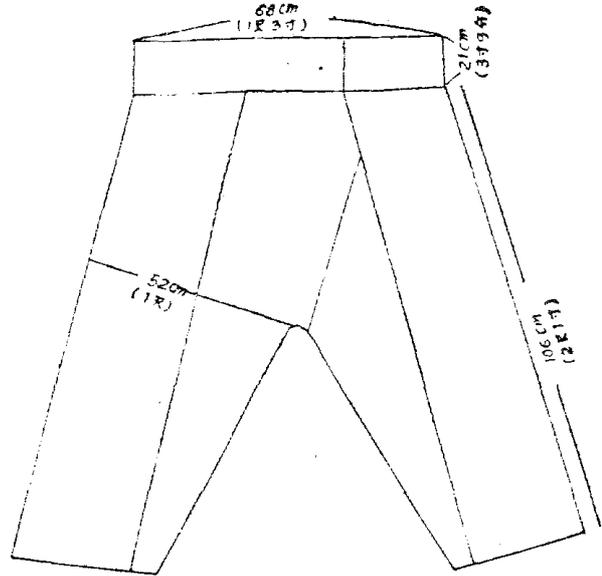


圖 7. 寿衣 (男 : 속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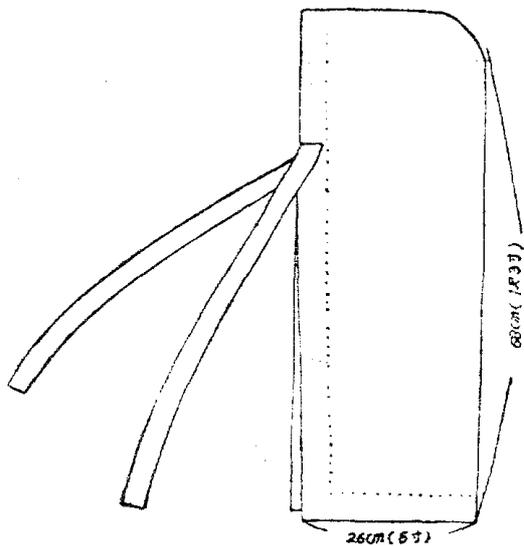


圖 8. 寿衣 (男 : 복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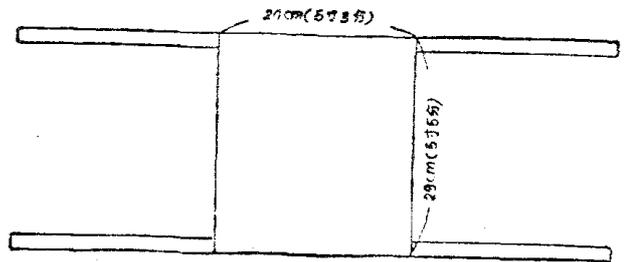


圖 9. 寿衣 (男女 : 襟目)

(石宙善 : 우리나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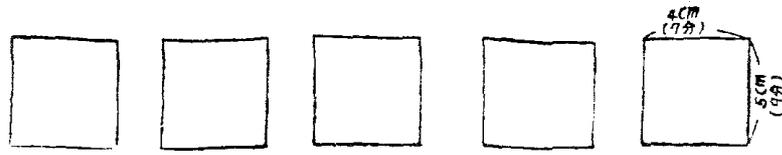


圖 10. 寿衣 (男女: 汚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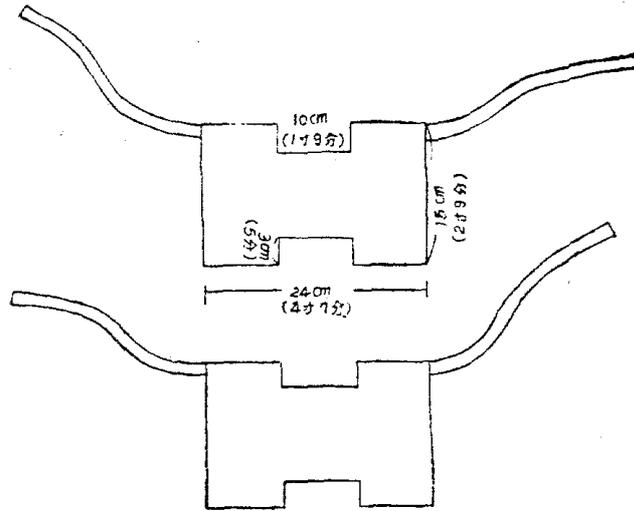


圖 11. 寿衣 (男女: 握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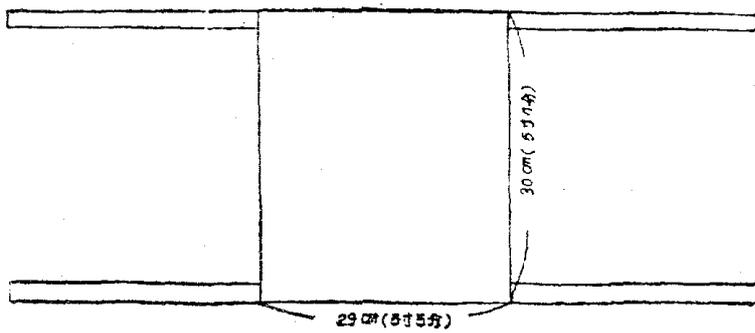


圖 12. 寿衣 (男女: 裹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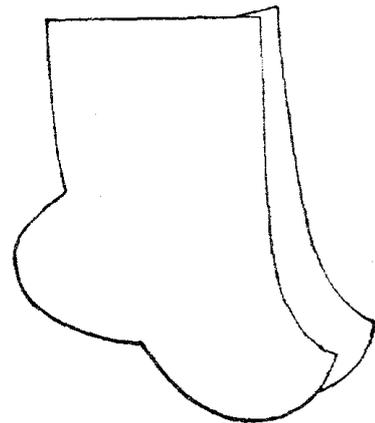


圖 13. 寿衣 (男女: 머선)

(石宙善: 우리나라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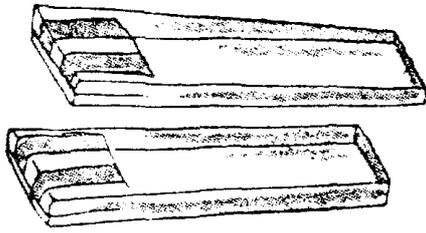


圖 14. 寿衣 (男女 : 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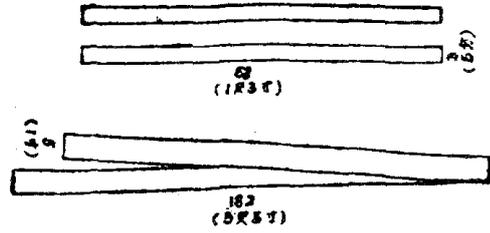


圖 15. 寿衣 (男 : 허리띠, 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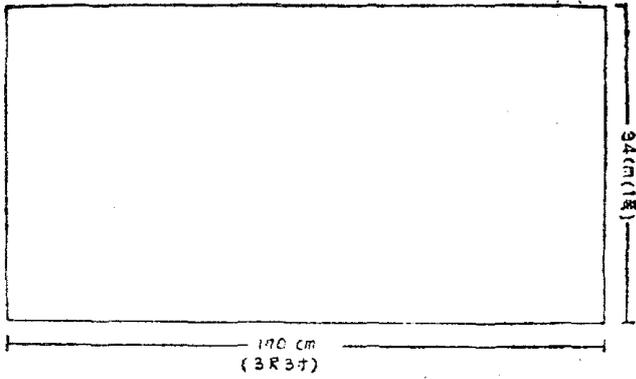


圖 16. 寿衣 (男女 : 天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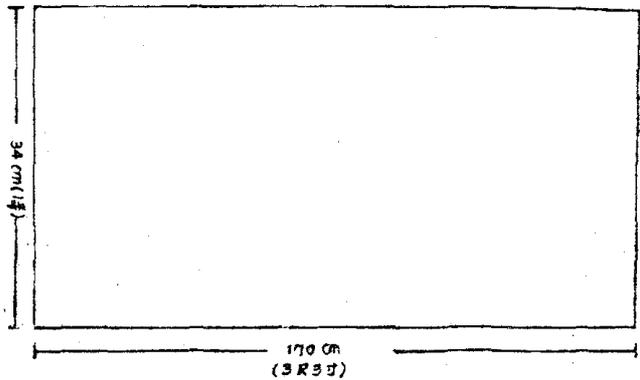


圖 17. 寿衣 (男女 : 지요)

(石宙善 : 우리나라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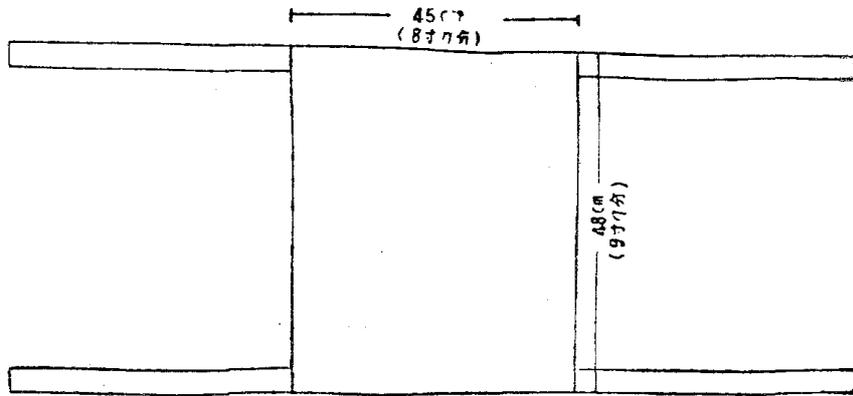


圖 18. 壽衣 (裹肚) 男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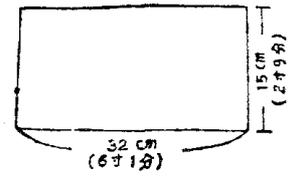


圖 19. 壽衣  
(男女 : 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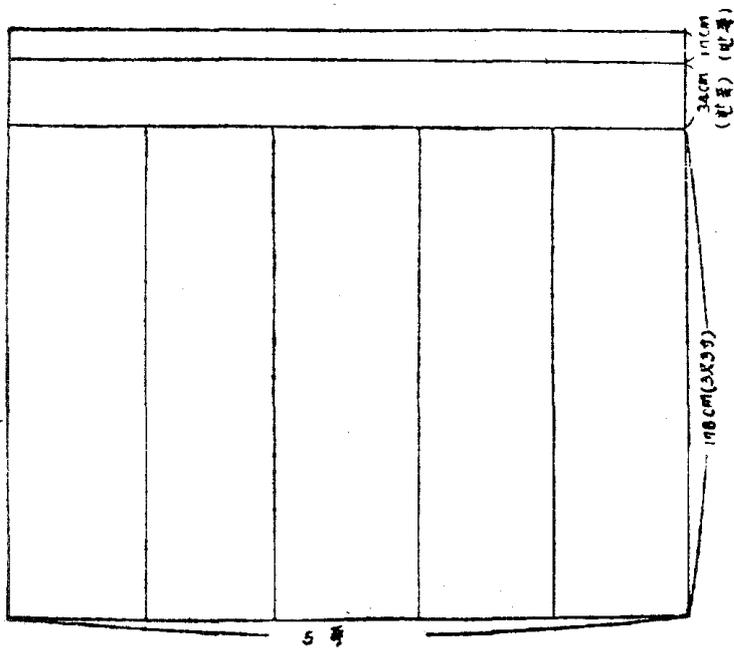


圖 21. 壽衣 (男女 : 大飲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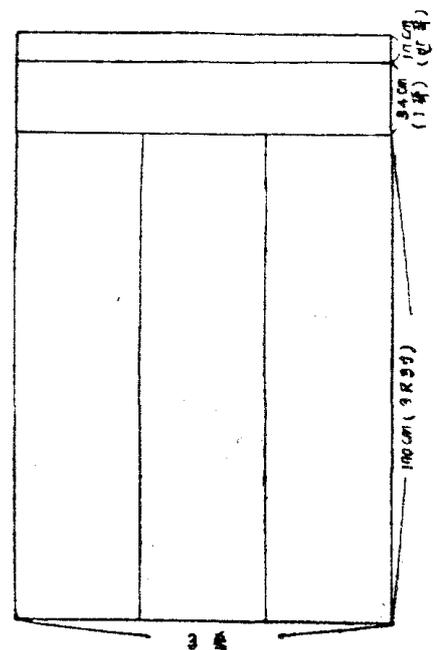


圖 20. 壽衣 (男女 : 小飲食)

(石宙善 : 우리나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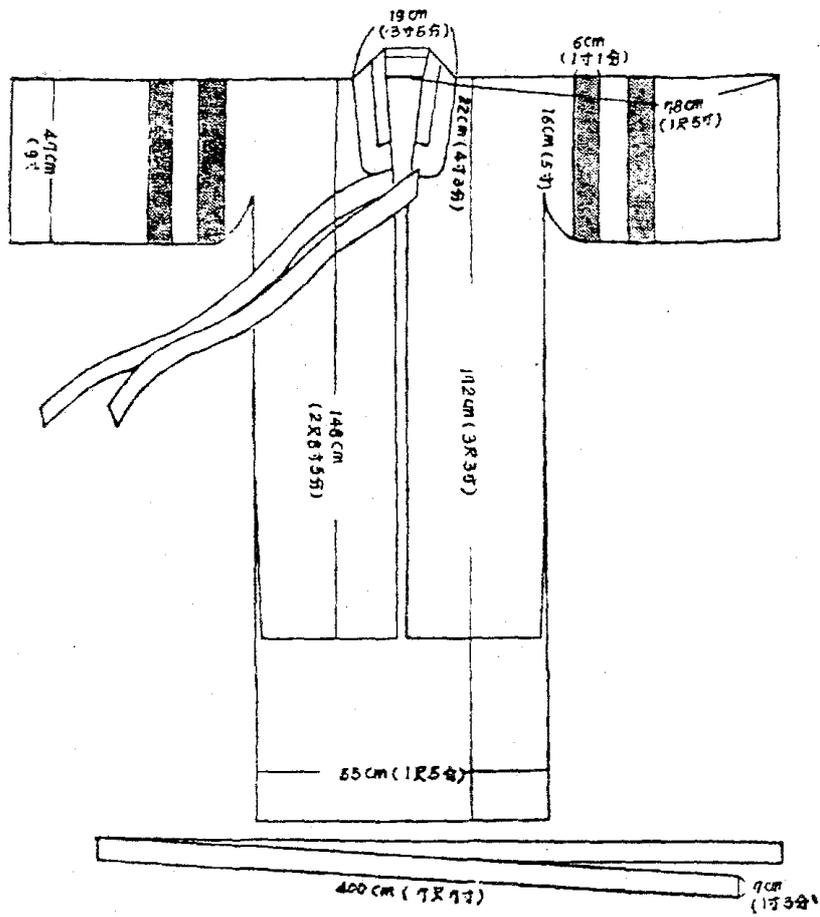


圖 22. 壽衣 (女: 圓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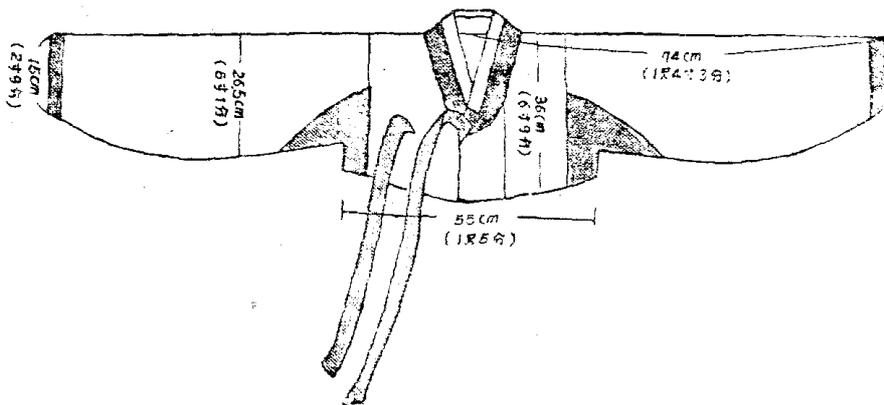


圖 23. 壽衣 (女: 삼회 장저고리. 연두색)

(石宙善: 우리나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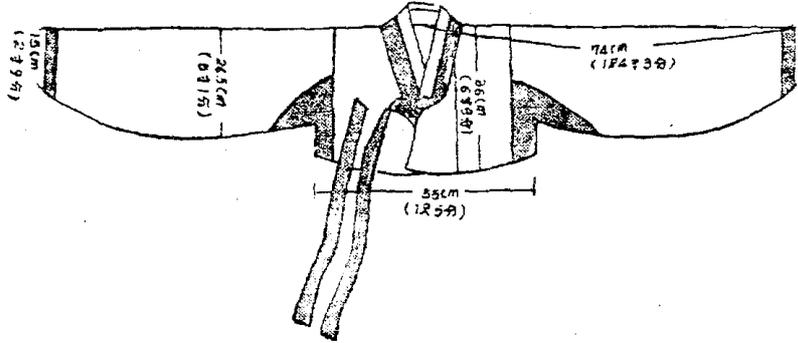


圖 24. 寿衣 (女: 삼희장저고리. 노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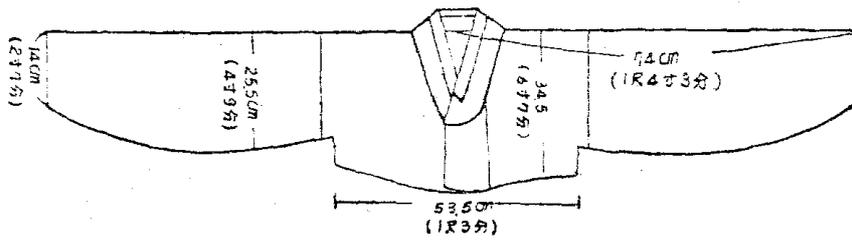


圖 25. 寿衣 (女: 숙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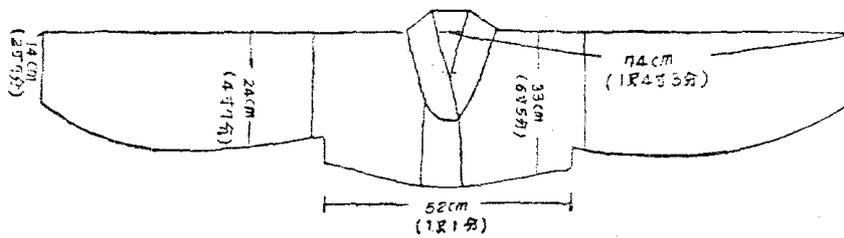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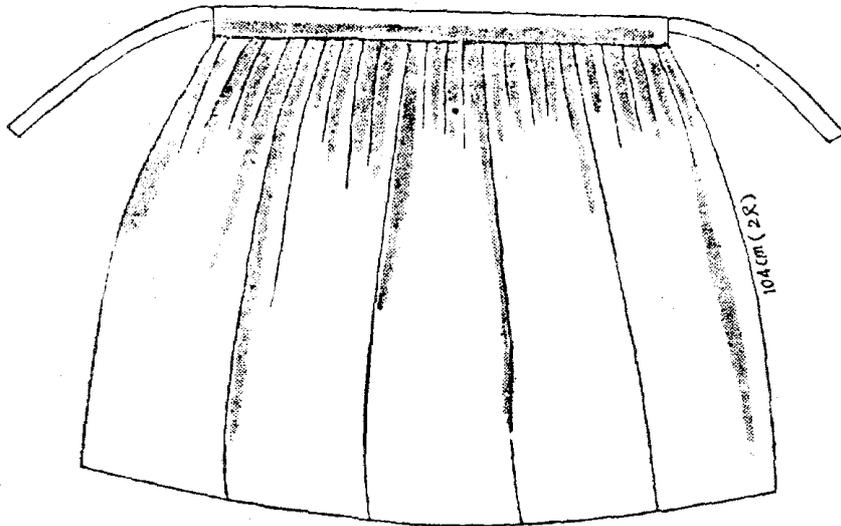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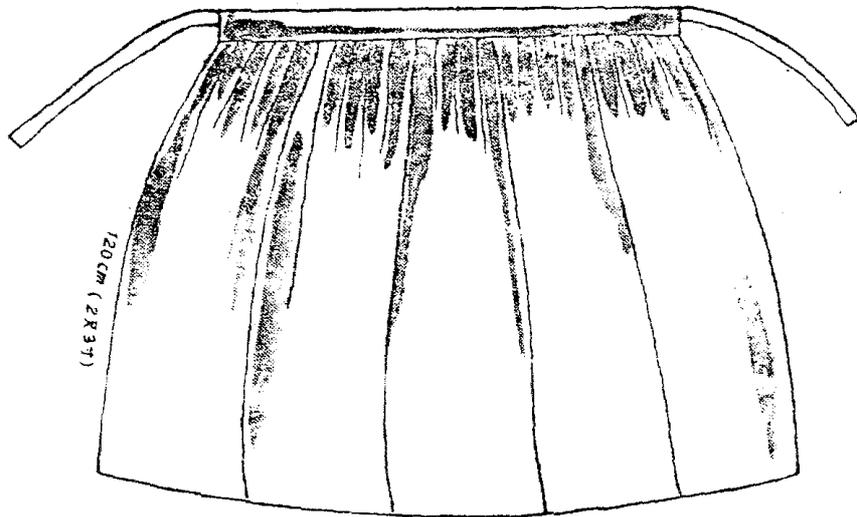
圖 26. 寿衣 (女: 숙적삼)

(石宙善: 우리나라 옷)



5 폭

圖 27. 寿衣 (女: 홍치마)



5 폭

圖 28. 寿衣 (女: 청치마)

(石宙善: 우리나라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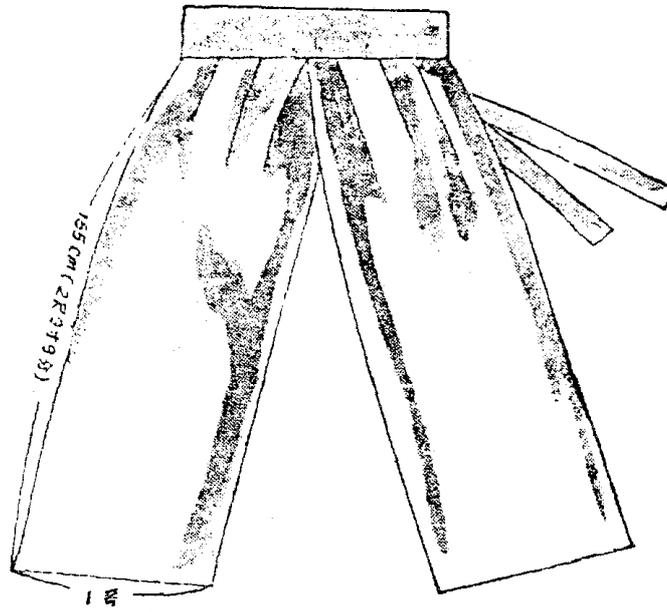


圖 29. 寿衣 (女 : 단속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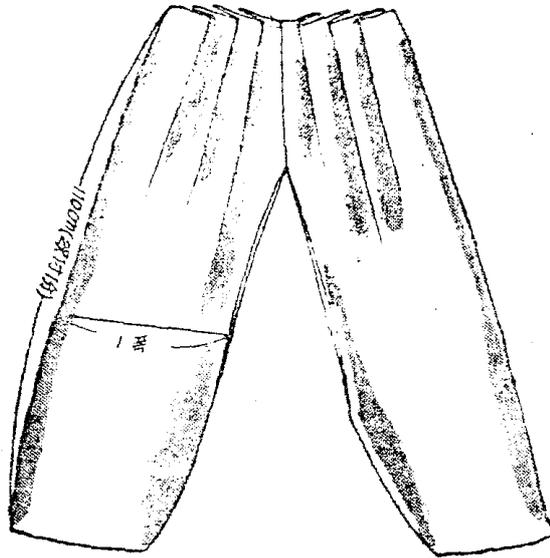


圖 30. 寿衣 (女 : 바지 )

(石宙善 : 우리나라 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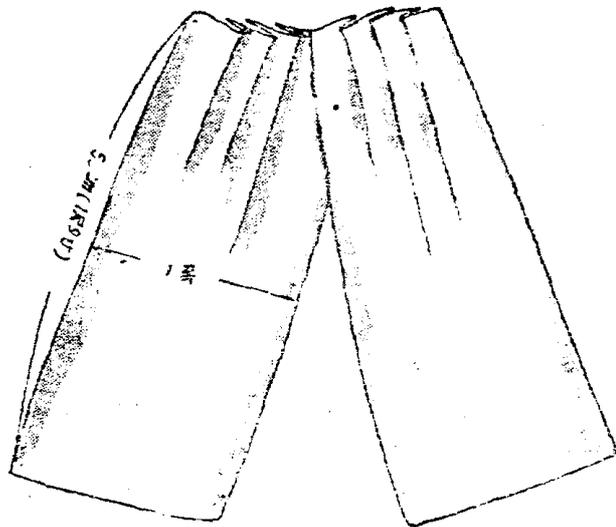


圖 31. 寿衣 (女: 女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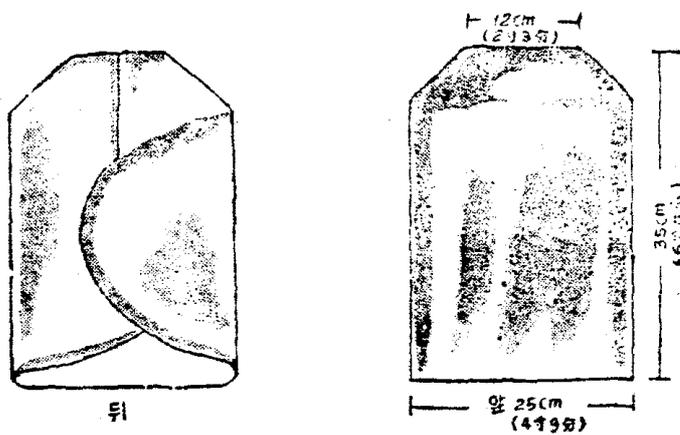


圖 32. 寿衣 (女: 女帽)

(石宙善: 우리나라 옷)

## 参 考 文 献

-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 礼服에 關한 研究” 仁川教育大學, 1976.
-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亜細亞文化社, 1973.
- 金尙憲. “南槎錄” 1601.
- 金錫翼. “耽羅紀年” 1918.
- 文宗實錄 卷三
- 憑虛閣李氏. “閩合叢書” 宝晉齋, 1975.
-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新聞社, 1947.
- 石宙明. “濟州島隨筆” 宝晉齋, 1968.
- 石宙善. “우리나라웃” 光明出版社, 1961.
- 石宙善. “韓國服飾史” 宝晉齋, 1971.
- “三別抄抗蒙史” 향토교육자료 3.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7.
- “삼별초항몽투쟁사” 제주도, 1978.
- “英祖實錄” 卷 八十七, 九十一, 一百二
- “瀛洲誌”
- 李奎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卷 十五
- 李德懋. “青莊館全書”
- 李杜鉉, 張壽根, 李光奎. “한국민속학概說” 民衆書館 1974.
- 李元鎮. “耽羅志” 1653.
- “正祖實錄” 卷二十六
-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1969.
- “濟州道要覽” 濟州道廳, 1954.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69 ~ 1980.
- 後漢書.

A Study on the Types of Clothing  
Used in Rites of Passage on Cheju Island

By Koh Boo-za

This thesis pertain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clothing utilized by the peoples of Cheju Island in the various stages of the "Rites of Passage ", was prepared by the author as a result of word of mouth surveys on Cheju Island and through researching "Materials of Synthetic Investigation about National Folks" published by the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due to the almost extinct use of this tradition which began to sharply decrease during the 1950s.

The phrase "Rites of Passage ", describing the phases one must inevitably pass through, through one's lifetime, was designated by Van Gennep. The phases of life, namely are birth, reaching adulthood, marriage, and death, which all have their peculiar ceremony and attire.

However, the ceremony of reaching adulthood, the "Kwanrye ", is not included in the Rites of Passage of Cheju Island I have excluded it from this thesis.

The author as well as many others have researched the

Rites of Passage on Cheju Island, but the investigation of clothing and ornaments worn was insufficient, and therefore this further research is reflected in this thesis.

#### Ritual Attire on Birth

The first garment worn by an infant is on the third morning after birth. It is made of hemp cloth and called "Bottuichang", which is coarse in texture and loosely fitted thus stimulating to the skin of the wearer.

The thought of using this type of cloth as the infant's first garment was that it would help foster perseverance and a strong character derived from being constantly stimulated by its rough texture. It was also considered to help get rid of body dirt by its constant rubbing, and especially helpful because of inadequate bathing facilities.

This first garment is worn for some three weeks, and the garment of the eldest son is continually passed on the younger brothers or sisters only. For to pass it on to someone outside the family it was believed would pass on their own happiness and fortune to others. However, if a family is too poor to purchase the cloth, they sometimes borrow it for a short time to be worn by the infant, for it is thought that one cannot be

called a real "human being" if ~~one~~ is not dressed properly for the first phase of the life process.

The garment is also known as "Kilbok ", a piece of cloth taken from the "Bottuichang" and worn near the body which is said to bring good luck to one involved in a lawsuit or one who goes to the battlefield.

#### Marriage Attire

The second phase of life, and second rites of passage is the marriage ceremony,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ceremony of reaching adulthood on Cheju Island, unlike that of other parts of Korea. Here,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ceremony and it has always been a solemn and strictly detailed affair.

On Cheju Island, though the bridegroom wore the "Samo kwandae" the attire and ornaments of the bride was different from that worn in other parts of the nation. For twenty years, from 1930 to 1950, the bride wore the wedding ceremony dress called "Wonsam chokduri ", and prior to that, the "Chang ", commonly used as a going out dress by women on the mainland was used as a wedding dress on Cheju Island.

The Cheju Island brides wore the traditional skirt and

jacket with the "Chang" cloak over it, hiding their face with the hood portion. For that occasion it was also popular to groom their hair upward into a large heap by using some eight to twenty-five devices under the hair known as "Dalbi." This hair style was very popular during the Yi Dynasty period, and though it wa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Cheju Island hair style it was temporarily forbidden by the government of the Yi Dynasty as overly luxurious.

The "Wonsam chokduri" wedding dress of Cheju Island was hard to procure by brides because it was primarily used by the women folks of the aristocratic class and women of public officials, and therefore they either had to make it themselves or borrow one.

The formerly used "Chang" would later be used as a shroud to cover the woman's body after death, and the "Dopo" (gentleman's cloak) worn on the inside of the Samo kwandae during the wedding ceremony only, and at other times as an outer garment symbolizing an adult, would be used as a shroud after his death.

#### Attires for Death Rites

On Cheju Island, The "Sueui" (death shroud) known as either "Hosang" or "Jeoseung", is put on the deceased just before

encoffinment. These terms were used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the garment was to be used in the next world.

The natives of Cheju Island have a great desire and expectation concerning the next life after death, and strive to live good lives, firmly believing in life after death. Therefore, they have made it a practice to provide the best clothes that had never been worn in this world, more splendid and luxurious than those worn in this life.

In brief, the people of Cheju Island not only prepared ceremonial attire but also clothing needed during ones lifetime. Historically then natives of Cheju Island have had a series of changes in clothing styles. At one time they adopted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for use. In the mountain regions men wore leather hats, leather clothing and leather shoes as the attire of herdsmen engaged in stockfarming. Farmers engaged in rice farming, wore "Gal" clothing, a special type of work clothes. After dyeing the trousers and jackets with persimmon juice and drying them in the sun for some 15 days, they became ochreous in color and could be worn for some three years.

For use in the sea by women divers there was an undergarment called "Mulsojungi". In the attire of the natives of Cheju Island we can see a dual system of clothing; work clothing

for daily life and ritual clothing worn during special ceremonies. This dual system also includes the form achieved from the discrepancy in social standing between public officials and the common people. Historically this island was appointed as a place of exile or was reigned over by foreign powers, namely the inflow of the Mongolians in the latter part of the Koryo Dynasty period, and the establishment of "Sambyulcho" (special capital defense unit of the Koryo Dynasty), and others. Thus, the Islanders have maintained their own peculiar language terminology and customs. However, since the inflow of the mainland culture and language has resumed and increased afterwards, the islanders have been sufficiently adapting in harmony with the rest of the nation.